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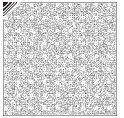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국회보

SINCE 1949

vol.647, October 2020

10



국회보

[표지이야기]

논발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10월에는
오곡백과를 수확하기 위한 타작이 한창입니다.
풍요로운 계절에 국민의 삶에도
풍년이 가득하길 국회가 응원합니다.

표지 일러스트 ©정윤미 작가



SINCE 194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Vol. 647, October 2020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0년 10월 5일

발행인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전상수 위원장(입법차장)

이승재 위원(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동하 위원(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위원(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선춘 위원(기획조정실장)

이상현 위원(법제실장)

한웅현 위원(문화소통기획관)

박기현 간사(문화소통담당관)

편집실무위원회

윤상은(보좌관), 제방훈(보좌관), 최정배(서기관)

편집실무진

글 김현아(취재보도 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04 지금 국회에서는

제21대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

국회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

박병석 국회의장 질병관리청 방문

국회,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처리

‘국민 소통의 장’ 국회 열린스튜디오 오픈

14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100일 비대면 기자간담회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위한 소통과 협치의 100일

특집 초선의원의 소회와 각오

22 ‘평범’이 ‘희망’이 된 시대, 따뜻하게 똑똑하게_ 강선우 의원

24 국민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역균형발전’_ 김수홍 의원

26 소방관의 사명감으로 ‘안심할 수 있는 세상’ 만들고파_ 오영환 의원

28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며,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_ 장철민 의원

30 정치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 뒷받침_ 김병주 의원

32 ‘사춘기, 100일’ ‘햇살 가득 문화예술’을 위해_ 유정주 의원

34 따뜻한 보수, 변화하는 보수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 실천_ 강민국 의원

36 국민 마음 어루만지는 따뜻한 정치, 늘 함께 공감하는 정치 다짐_ 구자근 의원

38 국민께서 4년간 맡겨주신 국회의원 배지 6g의 무게_ 황보승희 의원

40 서민과 사회적 약자 대변하고 국민 통합에 앞장설 것_ 이용 의원

42 서민들의 삶을 살피며 민심 그대로의 국회 실현_ 강은미 의원

44 정치도 간호처럼, 국민의 아픈 곳을 살피겠습니다_ 최연숙 의원

46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국회_강민정 의원



48 길에서 길을 찾다_ 정태호 의원
인재의 산실에서 창업의 산실로 변화 꿈꾸는 '관악'

52 칭찬합시다_ 이종배 의원
진심어린 협치만이 진정한 신뢰를 얻는다

54 의원의 좌우명_ 임종성 의원
"살기 좋은 광주 만들어 밥값하는 정치인 될 것"

56 나의 인생 나의 정치_ 최승재 의원
"민간경제 싹틔줄인 700만 소상공인 지켜낼 것"

58 일하는 국회·공부하는 국회
공공주택·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64 새 법률 소개
자영업자 지원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71건 처리

70 법률 시대를 읽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_ 송주아

72 법 시행 그후
'한국수화언어법'

74 주재관 리포트
코로나19 상황에서 영국 의회의 원격회의 운영 사례_ 임종수

77 국회스케치

78 만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80 위원회는 지금
국회,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관련 현안질의 등 열려

84 입법의 현장
"신속하고 빈틈없는 방역시스템으로 국회 코로나19 대응"

86 국회 뉴스

92 국회 사람들
과학기술인에서 입법조사관으로_ 박소영

94 청년에게 듣는다
청년, '도움을 받는 존재'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로_ 김선재

96 과학을 읽다
시간여행 물리학_ 고호관

98 오천년의 숨결, 우리 유물을 찾아서
우직한 백제의 힘, 익산 미륵사지 석탑_ 이광표

102 역사 속 길을 찾아
단풍 속에 숨어 있는 보물들을 찾아 길을 걷다_ 장태동

106 생활 속 우리말글
준말의 표기 요령_ 김형주

107 정치 관련 주요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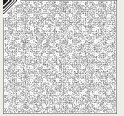
제21대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



9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제21대국회가 9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는 9월 7일, 8일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7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진행

됐으며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를 마치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을 위한 입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가 국민 ‘위기의 강’ 넘게 튼튼한 다리 놓아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코로나19 위기 확산과 관련해 “여야가 코로나 및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집중 처리해야 한다”며 ‘실사구시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심화, 부동산 시장의 불안 등 시급·중대한 국가적 과제가 밀려왔지만 국회가 제때 제대로 협력하고 대응했느냐”며 “국회가 국민이 무사히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그러면서 활발한 법안 처리와 빠른 대응을 위해 “상임위 중심의 상시 국회가 활성화돼야만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고 했다.

여야에는 거듭 협치를 당부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집권당답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는 것과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포용의 정치, 통 큰 정치를 이끌어달라”는 것을, 야당을 향해서는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호소했다.

국회 기능의 강화를 위한 정부의 협력도 요청했



9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정부에 당부한다”며 “중요한 예산·법안·정책 등을 국회와 사전 협의 후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야당에도 여당 못지않게 성의 있는 설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개회식 때

두 차례 발열 체크를 진행하고 애국가도 마스크를 쓴 채 1절만 불렀다. 취재 인원도 공동기자단 운영으로 최소화했다. 본회의장 의석에는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를 완료했고, 각 의석에는 모두 손소독제를 비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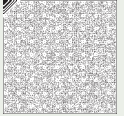
이낙연 당대표 “원-원-원(win-win-win)의 정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7일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 정당을 상징하는 ‘4색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원-원-원(win-win-win)의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이 되는 원-원-원의 정치를 시작하자”며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원-원-원의 정치가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우분투(ubuntu)’를 언급하며 “‘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K-방역을 성취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고, IMF 외환위기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겨냈다”며 “그런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지금의 국난도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야당과의 ‘정책 협치’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 싸움을 넘어 정책 경쟁과 협치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정책 협치를 통해 정무 협치로 확대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정 정례대화



9월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를 다시 시작하고, 4·15 총선 공통 공약을 제21대 국회에서 공동 입법하자고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부동산·재정·공공의료 비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 의혹을 정조준하며 국회에 공정 사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또 부동산, 재정, 공공의료 등 문제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세금 폭탄’과 부동산 감시기구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집 가진 서민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위헌적 발상까지 등장했다”며 “‘전월세 3법’은 도리어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냈다. 그러나 두 정부는 나라 곳간을 함부로 털지 않았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한국과 터키만 외면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파업 사태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의료진 마저 편을 가르고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과감한 대응으로 위기 극복”

국회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



9월 14일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안 심사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열린 7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에 준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올 한 해 네 차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재정 건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지금은 사상 초유의 위기”라며 “전례 없는 위기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4차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두고 “지원 대상에

서 제외된 분들은 아쉬움이 크실 것”이라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민이 방역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경제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연대와 협력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게 정부는 범부처 협조체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어려운 국민이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정부의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9월 14~17일 나흘간 대정부질문 실시

제21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9월 14~17일 진행됐다. 14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6일 경제 분야,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14일 본회의에서는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실시됐다. 본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 국무위원이 출석했다. 이날 실시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돌봄정책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강훈식 의원은 스웨덴의 사례를 들며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육아휴직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 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기득권과 저항을 버리고 한 걸음씩 물러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20년 뒤의 대한민국을 그려본다. 2040년 9월에 오늘 같은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15일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공방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피로감을 호소하며 민생경제 살리기 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

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한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 조사결과 현재까지는 사과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16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4차 추경안과 ‘뉴딜펀드’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여당은 7·10 부동산 대책과 한국형 뉴딜 등에 대한 정책 질의를 통해 정부 정책 효과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한 반면, 야당은 4차 추경에 포함된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급과 뉴딜펀드의 적정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17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발표에 의혹이 많다”는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의 발언에 “우리 K-방역의 핵심은 투명성”이라며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통계는 정확하다”고 말했다. 양성판정률이 비공개된다는 지적에는 “비밀이 아니고 전문가들은 다 받아보고 있다”며 “전혀 숨길 일이 아니고 숨길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는 아동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걱정을 공감한다”며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는 당장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법무부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회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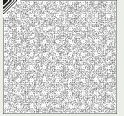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9월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9월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났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시급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코로나19 방역이나 민생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에 코로나19 4차 추

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국민 모두 몹시 절박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은 한시가 급하다. 추석 전에 그들 손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돌아가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국회의원 주재 원내교섭단체 정당 대표 정례회의를 월 1회 개최하기로 했다. 또, 지난 총선 공약과 정강·정책 중 공통 사안을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 질병관리청 방문



박병석 국회의장이 9월 21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정은경 청장과 대화하며 그간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9월 21일 충북 오송에 위치한 질병관리청을 깜짝 방문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부터 K-방역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게 된 데에는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 그리고 정은경 청장님을 비롯한 질병관리청 직원 모두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방역을 우선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이 더 노력해달라.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청장은 “질병관리본부 시절을 포함한 질병관리청에 국회의장님이 찾아오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코로나19 탈출구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국회,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처리

국회는 9월 22일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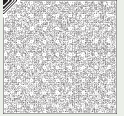
국회는 이번 4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대상간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는 한편, 추가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게 정부안 규모 내에서 증액 재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수정 의결한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 8천444억 원에서 6천177억 원을 감액하고 5천881억 원을 증액해 296억 원을 순감액한 7조 8천148억 원이다.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전 국민의 20% 수준인 1천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1천839억 원,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 대한 독감 무료백신 예산 315억 원, 당초 돌봄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학생(약 138만 명)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15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2천74억 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간 형평성을 위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한 810억 원,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했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 20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640억 원, 최근 ‘코로나 고립’으로 있었던 비극적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위기아동 보호 강화 예산 47억 원을 확대 편성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었던 이동통신요금의 지원 대상을 만16세에서 34세까지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해 5천206억 원을 감액하고,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 원과 행정지원비용 75억 원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절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외에도 2019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결산 승인안이 각각 처리됐다. 이밖에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및 임대료 부담 완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



‘국민 소통의 장’ 국회 열린스튜디오 오픈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왼쪽부터)이 9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스튜디오’ 개소를 축하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는 9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열린 스튜디오’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열린스튜디오’ 오픈 축하 메시지를 통해 “SNS뿐만 아니라 지역과 여러 단체에 보내는 축하 영상을 쉽게 촬영하는 데 열린 스튜디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이 스튜디오를 계기로 우리 시민과 의원 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시민들의 뜻을 잘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열린스튜디오’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6월 취임 직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편의를 위해 제안한 것으로, 국회의원이 직접 SNS나 축하 등을 위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스튜디오에는 촬영세트와 4K카메라·크로마키 스크린 등 촬영 장비를 갖췄고, 전담인력 1명이 상주해 촬영을 지원한다. 📺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위한 소통과 협치의 100일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100일 비대면 기자간담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9월 16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9월 16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준칙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난이라 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가 유연하고 빠른 결정을 위해 ‘당론 최소화’와 ‘상임위원회 중심의 상시국회’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 때가 됐다”고 촉구하며 “국회의장으로서 정책협치의 촉진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회 개혁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의 주요 내용이다.

Q.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취임 100일을 축하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취임사에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이 원하는 국회,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로 나가자고 당부하면서 소통이 정치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취임사에서 강조하신 내용이 얼마나 이뤄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느낀 소회도 여쭙고 싶습니다.

A. 취임사에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소통을 하면 공감대가 생기고 공감대가 넓어지면 협치의 길, 타협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파종했고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회담이 주례회담으로 정례화됐고, 특히 지난 1년 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여야 당대표 회담도 개최돼 월례회의로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중진의원 간담회까지 정례화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정책위의장 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채널이 다양화되고 폭넓게 진행됨으로써 협치를 위한 길을 깔고 소통의 장치를 확실히 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Q.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상임위 배분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임위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A. 개원 초 원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해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께 매우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당시 당장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직장과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위기와 민생위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 등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런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했을 것입니다. 상임위 재배분 관련 추가협상에 대해서는 문은 닫혔지만 빗장은 걸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줄탁동기(倅啄同機)’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에서 깨어나려면 안에서도 쪼고 밖에서도 쪼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에서 당기든, 밖에서 밀든, 어느 한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타진한다면 의장은 적극 중재하겠습니다.

Q. 의장님께서서는 국민의힘에 8월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마쳐달라고 하셨는데 여야가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제21대국회의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A. 공수처에 관해서는 법적절차에 따라 야당에 9월 1일까지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수처장에 대한 비토권을 갖게 됩니다. 추천위원 7명 중에 2명만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추천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개혁과제로는 궁극적으로 국회에 협치의 초석을 확실히 다질 것입니다. 또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해 국력의 소모를 줄이고 코로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선거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1대국회 전반기에 못하면 또다시 4년을 흘려보낼 수 있는 헌법 개정 문제도 과제입니다. 남북국회회담도 진정성을 가지고 차분히 추진할 것입니다.

Q. 지난해 일어난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처럼 국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치하는 게 아니라 사법기관에 의존하는 소위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그리고 윤리특위가 구성됐는데 염두에 두고 계신 개선책이 있는지요.

A. 분쟁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회가 용광로 역할을 못하고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은 국민의 대변기관임을 포기하는 행위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다양한 여론을 하나의 용광로에 녹여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최근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여야 합의로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제21대국회가 자신들의 문제에 좀 더 엄격해짐으로써 국민이 국회가 자정기능을 확보했다고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A. 전 국토의 11.8%밖에 안 되는 지역에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넘쳐서 문제고 지방은 모자라서 문제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방소멸을 막아야 합니다. 평소 가장 지방적인



비대면 방식으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것이 가장 국제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문제는 여야 쟁점사항이라 의장으로서 조심스럽지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해결해야 하고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Q. 코로나19의 장기적인 확산으로 ‘언택트 국회’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입니다.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에 대한 야당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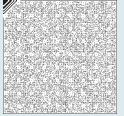
A. 야당의 우려가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우려를 씻을 수 있는 확고한 법적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장인 제가 의회주의자로서 의회 권위를 약화시키거나 일방적인 독주, 또는 비의회주의적인 의사결정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법 111조 1항은 회의를 회의장에서만 할 수 있고 그래야 출석 표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신 것처럼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곳 중의 하나가 국회입니다. 한 사람의 확진으로 국회가 멈춘 사례가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의원 중 한 명이라도 확진

자가 나오면 본회의나 상임위를 열 수 없습니다. 당장 여야대표회담에서 합의됐던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도 야당 정책위의장의 자가격리로 10여 일간 못 열게 됩니다. 코로나19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의회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영국도 비대면 회상회의를 도입하고 화상표결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원 한 사람이 다른 의원 열 사람을 대리해 투표할 수 있게 했고, 영국은 의원 한 사람이 다른 의원 한 사람에 대해 대리투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왜 의회선진국이 이런 제도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비대면 화상회의는 일상화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긴급하고 위태로운 사태가 생길 것을 막고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극히 예외적, 한시적으로, 그리고 모든 비대면 회의와 표결은 여야합의로만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를 만들면 될 것입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야당이 걱정하는 의회주의 약화나 일방적 운영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Q. 지난 제헌절에 의장님께서서는 개헌과 관련, 내년까지가 개헌적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개헌안의 핵심은 무엇이고 개헌 스케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지금까지 아홉 번의 개헌이 있었고 마지막 개헌이 1987년이었습니다. 그 후 33년이 흐르면서 우리 경제규모가 10배 이상 커졌습니다. 지금의 헌법이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기후·환경변화를 겪으면서 국가 우선과제가 재조정돼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후변화와 자치분권, 자유권적 기본권에 머물고 있는 헌법이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구조 개편도 필요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태에서 개헌이나 선거법 제도 개편을 본격 논의하는 것은 초점을 흐릴 수 있고 국력결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년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바랍니다.

Q. 의장님이 제안하셨던 남북국회회담 준비는 진척이 있는지요.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회담성사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A.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남북국회회담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숙명적 관계입니다. 경색된 국면 돌파는 남북이 주체가 돼야 합니다. 아무리 국제정세가 어려워도 남북이 민족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가 막혀 있고 긴급연락채널까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자유로운 국회가 회담을 갖는다면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함께함으로써 협치의 물꼬도 틀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여야 외교통일위 간사가 남북국회회담촉구결의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압니다. 큰 틀에서 남북국회회담의 필요에 대해 공감할 것으로 믿고 있고 조만간 결과로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결코 멈추지도 않고 차분히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Q. 한일 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일관계가 나아질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 구상하고 계신 의회외교활동이 있는지요.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입법공백이 생기는 법안이 많은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요.

A.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조속히 보완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 보완을 촉구하겠습니다.

한일관계는 기본적으로 역사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 두 트랙으로 가야 합니다. 과거는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양국관계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저는 일본 지도자들에게 한일관계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965년 한일기본협정이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는 것,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문제는 당사자적 관점에서 당사자가 양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는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총리 교체로 모멘텀(동력)이 생겼습니다. 그간 한일 양국 의회지도자들이 번갈아 회의를 개최해왔고 원래 올해는 일본에서 회기가 열릴 차례였습니다. 일본이 전향적인 자세를 갖는다면 한일 간 미래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어 오늘과 내일을 부정하거나 발목 잡는 일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정리. 김현아



특집

조선의원의 소회와 각오

‘평범’이 ‘희망’이 된 시대, 따뜻하게 똑똑하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서구갑

국민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북 익산시갑

소방관의 사명감으로 ‘안심할 수 있는 세상’ 만들고파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의정부시갑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며,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전 동구

정치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 뒷받침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례대표

‘사춘기, 100일’ ‘햇살가득 문화예술’을 위해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례대표

따뜻한 보수, 변화하는 보수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 실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경남 진주시을



제21대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제21대국회의 초선 의원은 151명으로, 지난 20대국회의 132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초선 의원이 과반을 차지한 것은 제17대국회 이후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국회보 이달 특집에서는 제21대국회의 초선 의원 13명에게 의정활동 100일에 대한 소회와 각오를 들어보았습니다. 바쁜 중에도 국회보 원고 청탁에 흔쾌히 응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주>

국민 마음 어루만지는 따뜻한 정치, 늘 함께 공감하는 정치 다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경북 구미시갑

국민께서 4년간 맡겨주신 국회의원 배지 6g의 무게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부산 중구영도구

서민과 사회적 약자 대변하고 국민 통합에 앞장설 것

이용 국민의힘 의원, 비례대표

서민들의 삶을 살피며 민심 그대로의 국회 실현

강은미 정의당 의원, 비례대표

정치도 간호처럼, 국민의 아픈 곳을 살피겠습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비례대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국회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비례대표

‘평범’이 ‘희망’이 된 시대, 따뜻하게 똑똑하게

사랑하는 연인과의 100일. 사랑하는 아이의 100일. 지나온 시간이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지금이 떨리고, 내일이 설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첫! 국회의원 생활이 100일 남짓 지났습니다. 많이 감사하고, 정말 다행이고, 벅차게 떨리고, 한없이 설렙니다.

따뜻한 상식의 눈과 귀를 갖겠다 다짐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한 어르신 어깨를 꼬옥 안아드리자고 다짐했습니다. 청춘들의 손을 잡고 기울어진 운동장 끝 쪽에라도 함께 올라서서 ‘우리 여기 있어요’를 외치자고, 많이 아파서 일찍 철이 들어버린 어린아이를 대신해 소리 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일간 매일매일 나에게 묻고, 또 약속했습니다. 처음 그 마음,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를. 그래야지만 이 다짐들을, 약속들을 지켜낼 수 있을 테니까.

또 다른 100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1대국회의 첫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이어집니다. 9월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100일 동안 국정감사, 다양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와 처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국난을 겪으며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우리 삶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위원회인지 절감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끈 질병관리본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부는 지난 9월 12일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본격 출범했습니다. 이번 승격으로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인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질병관리본부를 승격시키고 예방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이 하나둘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질병관리청 출범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탠 것 같아 뿌듯합니다.

흔히 국정감사를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정활동이고, 국회의원의 모든 노력이 집결되는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국회로 향하고, 언론에서도 국회와 피감기관 모두에게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맞이하는 첫 국감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정치가 우리 삶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평소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 보이지 않는 낮은 곳, 기울어져 있는 더 아픈 곳 등을 먼저 살필 생각입니다. 국감을 통해 제시한 희망과 대안이 정책으로 우리 삶에 녹아들어 숨 쉴 수 있도록 정말, 잘, 해보고 싶습니다.

복지의 목표는 복지를 넘어 행복이 돼야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으로서 또 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복지의 궁극적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삶의 첫 시작점과 마지막. 우리는 다양한 위기

를 겪습니다. 예상 밖의 질병이나 사고, 실직 등 수많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도, ‘내일은 어떻게 좀 해봐야지’ 하는 최소한의 의지를 가질 수 있으면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고,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복지의 목표가 복지(welfare)를 넘어서 행복(well-being)이 돼야 합니다.

한국형 방역모델인 ‘K-방역’은 세계적 표준이 됐고,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소극적 복지라면, 누구나 적정 수준의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 복지의 영역이고, 그것에 숨결을 불어넣는 것은 정치의 역할입니다. 정치의 목적은 결국 국민의 삶을, 그리고 국민의 죽음까지도 지키는 것입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똑똑한 정치 하고 싶어

“엄마,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해.”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마를 홀로 고민하고 있을 때, 딸아이가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리해줬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갈래 길 앞에서 고민할 때도 제 심장이 가리키는 곳이 어딘지를 또렷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똑똑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일을 할 때, 제 심장을 그 일 속에 놓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실천의 시간 속에서 ‘참 부지런하고, 겸손하더라’라는 평가를 저 스스로도, 그리고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로부터도 받고 싶은 욕심입니다. 🍵

국민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숨 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국회의원으로서 100일을 넘겼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과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코로나19와 연이은 자연재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많습니다. 부디 다 같이 힘내어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 국회 공무원에서 정치현장으로

1990년 입법고시에 합격하여 국회 공무원으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제 삶은 항상 정치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정치의 현장에서 나쁜 정치가 국민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바른 정치가 어떻게 국민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지 목도하면서 정치인이 되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업무를 통해 실력을 연마하고 준비하여 꼭 30년이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선택해주신 위대한 익산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치를 옆에서 지원하는 것과 정치의 중심에서 실제 정치를 해 나가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배우면서



김수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일하는 바쁜 날을 보내고 있지만, 제가 출마를 결심하면서 품었던 목표들, 벅찬 당선의 기쁨과 함께 다짐했던 과제들, 처음의 그 순수한 열정을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매일 되새기며 하루하루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 100일간 우선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법안 발의 개수만 보고 정량적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발의하는 법안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민하여 입법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9월 말까지 1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동료의원들의 입법활동에도 동참하여 200여 건의 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무엇보다 경제·재정·조세 관련 법안 발의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들도 발의했습니다.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100%… 정도(正道) 지키는 정치

또한 ‘일하는 국회 TF’ 일원으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100%, 상임위원회 출석률 100%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한 매주 지역구(익산시갑)에 가서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품격을 지키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지키려고 마음을 썼습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막말, 이슈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 언행으로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초선이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인지도를 높이려는 주변 움직임에 휩쓸릴 수도 있지만, 정도(正道)를 지키고 배려하는 정치를 통해 국

민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정치 철학을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균형발전’입니다. 30년간 별다른 발전 없이 뒤처지는 고향 익산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가 정치에 입문한 가장 큰 이유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지방의 쇠퇴는 국민 모두가 지불해야 하는 커다란 비용입니다. 치솟는 수도권 주택가격을 잡으려 여러 정책과 법안이 수차례 발표되었어도, 국민적 갈등은 깊어지는 반면 집값은 좀체 잡히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역사적 배경이 다르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이 발달해 있고 재정 자립이 가능하기에, 지방 거주자들의 삶의 질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번잡하고 주거비용도 높은 수도권에서 살겠다고 애쓰지 않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초기에는 정치지도자들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장잠재력 있는 지방의 중소도시를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특별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만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수도권에 모든 것이 초집중된 상황에서는 지방 거주자들은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수도권 주민들의 삶도 팍팍하고 힘들 뿐입니다.

국민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앞으로 제 4년간의 의정활동 중심에 두고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

소방관의 사명감으로 ‘안심할 수 있는 세상’ 만들고파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국회의원 오영환입니다. 100일 소회라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농도 깊은 100일이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오영환을 소개하자면, ‘가장 시민에 가까운’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제안을 받기 전까지 너무도 평범한 한 명의 소방관이었고 평범한 남편이었던 저였기에 누구보다 더욱 시민의 시야로 모든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시민의 마음으로 고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

화재 현장에서 마주한 죽음 속에 정치의 중요성 느껴

그렇게 평범한 소방관이었던 제가 정치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은 현장에서 마주한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였습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진 않았을까. 현장에 대해 잘 아는 누군가가 반드시 나서주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방방재청 해체 등 국민 안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마주하며, ‘소방청 독립, 그리고 국가직 전환’이라는 숙제를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광화문 1인 시위도 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나름 소방관으로서 모든 역량과 최선을 다하는 동안, 소방 그리



고 국민의 안전한 삶에 정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일반인에서 국회의원으로 갑작스레 변화한 환경 속에서 저는 낯선 업무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소방관으로 일할 때에는 착용하는 옷과 장비 등이 무거웠지만, 지금은 마음이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배지가 그렇게 무거울 수 없습니다. 의정부 시민의 선택을 받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소방관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잘해내고 싶다는 마음의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선택받은 일꾼으로서 낯선 일들 앞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제가 마주했던 수많은 인명피해의 현장을 법과 제도를 통해 막아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감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마음속 깊이 국민에게 달려가는 소방관의 사명감을 간직한 채 출동하듯 의정활동에 임하려 합니다. 소방복을 벗었지만, 여전히 핏줄 속에 흐르는 소방관의 DNA로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욱 안전하게, 행복하게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행복의 근원이었던 ‘사람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놓치지 않도록 나 자신에게 담당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안전’이라는 시대정신. 그것이 국회의원 오영환의 원동력입니다. 국민과 안전 두 단어의 결합만으로도 막중하고 무한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사실 공부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서 깊게 침잠해 들어갈 만한 시간도 없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면서도 지역구민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아

직은 연습이 더 필요하다 느낍니다. 전방위로 움직이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집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더욱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법안, 안전 법안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역시나 제도 개선과 법안, 예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과거에도 계속 진행돼왔습니다.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껏 통과되지 못하고 산적해온 법안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려 통과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애석하게도 아직도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는 수많은 재난 피해와 산업 재해들, 사실은 그 원인 분석이 이미 끝났고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함으로 써 현장이 후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정말 민생 법안, 안전 법안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정치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모두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되, 국가를 믿고 그만큼 마음만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집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일터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이 보호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정치에서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법과 제도와 정책들이 사회 깊숙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국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며,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

제21대국회에 들어온 지도 100일이 넘었습니다. 현안과 정책을 살피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국회에 와서 가장 먼저 신경 썼던 부분은 국민과 한 약속이었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대전의료원 설립과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1호 법안을 발의했고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뜻을 모았습니다. 국가균형위원장을 만나 대전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의 공감을 얻어내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대전 동구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큰 곳입니다. 그간 만나온 많은 분이 변화와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응원해주셨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선 100일은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은 닦아놓은 토대를 발판 삼아 대전 동구를 발전시키겠습니다. 대전 동구의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변화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대전 동구를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만드는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위기를 맞은 노동시장, 밑바탕부터 재설계해야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세계의 극찬을 받은 우리나라



라의 방역이 있었지만, 사회의 틈을 파고드는 코로나를 막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혹독한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사회안전망 밖 사람들에게 힘든 환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이 더 나은 보호체제에 대한 고민과 논의의 적기인 이유입니다.

지난달 대표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공백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도 위기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자녀돌봄을 위해서 노력하는 직장인들과 국민들께 약간의 위로와 힘이 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로 퇴직을 고려한 맞벌이 부부가 절반 이상이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고려하면 코로나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노동시장은 대규모의 실업을 경험하면 그 세대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력현상’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행도 코로나19로 발생한 고용 충격이 10개월이 지나야 회복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국제노동기구 또한 노동시장 악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플랫폼 노동,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밑바탕부터 재설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책과 코로나 충격에 대비해 위기를 뛰어넘는 방법을 준비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상이변,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올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대전에도 평년보다 많은, 시간당 최고 1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평소에는 수해피해가 심각한 지역이 아니었던 만큼 도시의 기능은 쉽게 마비됐습니다.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마주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집중호우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적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보면, 단기적 대책뿐만 아니라 거시적 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환경부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것은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국가균형발전, 노동시장의 변화, 기상이변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쓸모 있는 정치인으로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치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 뒷받침

안녕하십니까? 김병주입니다. 제21대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간의 100일은 조선의원으로서 국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시간입니다. 국회는 제가 39년간 몸담았던 군대 못지않게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운동화 끈을 새로 매듯 국회의원으로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100일이 지나면서 차츰 국회에 적응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처음 세상에 태어나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완전한 면역체계를 갖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일이라고 하죠. 그 숫자 100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군에 대해 잘 아는 정치인으로서 세 가지 목표

사실 평생 군에만 몸담았던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한 가지 명확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튼튼한 안보로 강한 국방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튼튼한 안보와 국방을 위한 일꾼



으로서 제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음의 세 가지 목표입니다.

첫째는 튼튼한 안보, 강한 군대를 위해 국방위원회(국방위)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국방위가 국방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구인 만큼 국방력을 높이는 데 예산, 제도적으로 많은 뒷받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국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국방의 큰 축으로서, 튼튼한 안보를 다지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내면서 이 방면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셋째는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림으로써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 하나 되는 마음을 이끄는 것입니다. 국방력을 높이는 데 국민의 단합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저는 세 가지의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엔 이를 이루기 위해 사전 여건을 조성하고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해왔고 나름의 결실도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국방위 소속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세 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또한 해군발전을 위한 세미나와 첨단 전력 강화 세미나 등 다수의 토론회와 세미나를 주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우리 군 문제에 관심을 두고 머리를 맞댈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등 다수의 관계자를 만나 많은 의견을 나누고, 조언도 들었습니다. 한미관계는 주변 여건에 따라 많은 변화가 따르기 때문에 이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미국 관계자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안보’ 알리기에 힘 쏟아

그 뿐만 아니라 저는 각종 TV 방송과 언론 그리고 자체 제작하는 유튜브 ‘주블리 김병주’ 채널을 통해 ‘진짜 안보’ 알리기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특히 ‘주블리 김병주’ 채널의 경우 현재 1만 2천600명의 구독자, 최대 조회수 24만을 기록하는 등 많은 분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0일간의 활동에 아쉬움이 더 많이 남습니다. 코로나19에 가로막혀 국방위 위원으로서 현장에 많이 가보지 못한 점, 군 장병들을 비롯한 국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호흡하지 못한 점이 무척 아쉽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국가적 재난들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루빨리 안정된 삶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년 넘게 군복을 입으면서 매일 아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 국회에 입문했던 그날의 초심을 기억하며 매일 더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같이 갑시다. 🇰🇷

‘사춘기, 100일’ ‘햇살 가득 문화예술’을 위해

‘사춘기’는 ‘날갯’이란 신선했음과 세상에 대한 ‘서투름’, 그리고 ‘설렘’을 상징합니다. 조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삶이 100일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 ‘국회의원 유정주’는 다시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잘 듣고, 조정해 제도화해야 합니다.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소외되기 쉬운 특정 분야 현장의 의견을 모아 입법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전문성은 물론이고, 다양한 의견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소통능력,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국회의원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화예술계 현장 전문가로 국회 입성

문화예술계 현장 전문가로 인정받아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소위 ‘여의도 정치’를 잘 알지 못했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누구나 겪는 선거라는 ‘트레이닝’ 과정도 충분히 거치지 못했습니다.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그런 저의 지난 국회 100일을 돌아보면, 청년·여성 이란 ‘희소성’ 덕분인지 과분한 당직과 역할을 맡아 ‘선함’이란 기대를 받기도 했고, 때로는 그만큼의 ‘서투름’으로 크고 작은 해프닝도 겪었습니다. 따뜻한 조언과 따끔한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독한 ‘길치’이기도 한 저는 아직도 국회 안에서도 길을 잃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속 ‘설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렘을 저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몸담았던 문화예술계를 대변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최소한의 먹고사는 걱정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의 작품이 국민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길 기대합니다.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설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설렘이 ‘자만’으로, 나아가 ‘사적 욕망’으로 변태되지 않도록 늘 긴장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권리와 의무, ‘퍼블릭 마인드’로 임할 것

‘무시무시한 악역’을 연기한 배우들이 촬영을 모두 마친 뒤 심한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연쇄살인마 배역을 맡은 한 배우는 “다시는 그런 역할을 맡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배역에 감정이입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배우의 연기력에 대한 존경은 물론이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실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순간 경계를 소홀히 하면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

갈 수 있다는 경고도 줍니다.

일전에 “국회의원 두 번 하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의 권위는 국민이 아닌 ‘금배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권리와 의무에 대해 늘 ‘퍼블릭 마인드’를 가지고 행사하고 이행하겠습니다.

현장이 정책을 결정합니다. 현장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정부와 원활히 협의할 수 있고, 국회에서 동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도 ‘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습니다. 국회는 다양한 분야 제각각의 우여곡절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공정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다’고 힘을 모아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그 소리가 저의, 그리고 개개인의 국회의원이란 기관의 존재 이유입니다. 더 크고, 더 넓게 들겠습니다.

이 글이 국회보 지면에 실릴 즈음이면 국정감사 준비로 한창 바쁠 때입니다. 10월 국정감사와 12월에 내년도 예산안을 잘 처리한 뒤 연말 즈음엔 ‘국회의원 유정주’의 팔다리에 ‘잔근육’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손발엔 굳은살도 조금 생기고, 눈가엔 약간의 잔주름이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게 국회의원이란 역할을 맡기신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미소로 만들어진 주름 말입니다.

짧지만 강렬한 사춘기, 잘 보내고 있습니다. 🍷

따뜻한 보수, 변화하는 보수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 실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주시을 국회의원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경남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젊은 정치’를 약속드린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정치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곳을 비춰주는 빛이 돼야 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소금 같아야 합니다. 이런 소신으로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더 나은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민생 입법 행보로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덮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다방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난은 모두에게 오지만 피해는 불평등하다는 말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일수록 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제1호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이미 2018년에 취업자 중 25%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한 축입니다. 그들이 감염병 발생이나 재난으로 인한 일시적 위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또 국가가 책임지는 보훈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인상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을 하향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지난 8월 대표발의한 '나쁜 부모(Bad Parents) 방지법'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아동을 부모의 학대로부터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동 학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모가 받아간 아동수당을 국가가 환수하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겁니다. 이를 통해 아동수당은 국가가 무조건 주는 돈이 아니라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조건으로 주는 수당이라는 인식이 제고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 학대 범죄에서 음주, 약물 등 심신미약 감경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나쁜 부모 방지법 패키지법'이 통과되면 갈수록 늘어나는 아동 학대 사건을 막고 경각심도 높일 것입니다.

이 밖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농어촌 조손(祖孫)가정을 지원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1천만 반려동물 가족들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를 표준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등 꾸준히 소외된 곳을 찾아보고 민생에 꼭 필요한 입법을 준비했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따뜻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꿈꾸고, '변화하는 보수'를 실천하다

제21대 정기국회에서는 '달라진 보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 갈등과 이념 갈등에 매몰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합의를 통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와 개혁을 이끄는 정치에 집중하겠습니다. 건강한 야당으로서 건강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돈을 푸는 것은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데 써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단기 일자리 늘리기, 탈원전 예산 등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살리기에 무관한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혈세를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지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합리적 야당으로서 '대화를 통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는 것이 국회의원의 소명인 만큼 민생을 위한 일은 여당과 '최대공약수'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보수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103명 의원 중 절반이 넘는 58명이 초선의원들로, 당의 쇄신과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공부 모임을 열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국민을 초청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더 변화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로 거듭나겠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제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입니다. 저도 제자리에서 소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 마음 어루만지는 따뜻한 정치, 늘 함께 공감하는 정치 다짐

국회에 입성한 지 100일이 쏜살같이 지났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동안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부족함도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합리적인 절차와 타협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제21대국회에서 다수결과 다수 여당의 힘으로 정책과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면서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으로 국론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 표명하에 제21대국회가 시작된 이후 거대 여당의 특권과 반칙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본회의 강제 소집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등 소통과 화합을 외면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괴감도 들었지만, 무엇보다 제20대국회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국민께 죄송스러웠습니다.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나름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봉쇄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해 내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 정비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소속 상임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각종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하며 해결 대책을 준비했고, 지역과 상임위 현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들게 버티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의 권익 향상과 보호를 위한 당내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 등의 활동에도 집중했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지난 100여 일 동안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며 때로는 상대를 설득하기도 했고, 내 생각을 바꾸기도 하며 나의 뜻을 펼치는 것보다 국민의 뜻을 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갈 최소한의 기반과 토대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제21대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막이 올랐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인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 심의 등 굵직한 일정들이 이어집니다.

첫 정기국회인 만큼 새로운 희망과 포부로 임해야

하지만 정기국회에 임하는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코로나19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 해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5·16 쿠데타가 있던 1961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국가 비상상황임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치권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과연 국회가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드리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 위해 여야가 협치해야

이번 정기국회는 ‘정쟁’의 장이 아닌 ‘협치’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정치적 논쟁보다는 구체적인 사실 중심의 질의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고 추가적인 입법조치까지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당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다수의 폭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21대국회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과정의 의회 민주주의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난극복을 위해서라도 소통을 통한 협치로 여야가 힘을 모아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

국민께서 4년간 맡겨주신 국회의원 배지 6g의 무게

정확히 20년 만입니다. 대학 4학년 때 7개월간 김형오 국회의원실 9급 비서로 일했습니다. 본관과 의원회관에 연결된 지하 복도를 오가다 보면 과거 혼자 서류가 잔뜩 실린 카트를 끌고 긴 복도를 따라 걷던 일이 엇그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의원실을 나오면서 ‘다시는 이곳에 못 오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 저는 6g의 국회의원 배지를 가슴에 달고 본회의장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전국 최연소 구의원에서 국회의원으로

만 27세 최연소 구의원이라는 타이틀은 지금까지 저를 따라다닙니다. 대학 졸업 후 고향인 부산 영도에 내려가 유학을 준비하면서 영어 강사를 했습니다. 바람 부는 어느 날 국회에서 모셨던 의원님이 영도에 왔다는 소식에 인사차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간 바람에 의원님을 뵙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의원님으로부터 “구의원에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도전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가끔 엄청난 결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전국 최연소 구의원에 당선된 것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들 틈에서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 여성이 살아남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누구 집 아들이고 어느 초등학교에 다녔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과 가깝게 지내고, 민원이라면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내 이웃과 고향을



황보승희 의원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위해 일한다는 것은 의정활동 내내 가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3선 구의원, 재선 시의원을 했습니다. 비록 낙선했지만 영도구청장에 출마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착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제 좌우명은 ‘착하게 살자’입니다. 살아보니 착하게 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듯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남을 배려해야 하고 그런 태도가 일관되어야 합니다. 정치인은 그런 일이 직업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회는 한정된 자원이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잘 배분되는 사회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상시적으로 충돌하는 사회에서 이를 공정하게 조정해주는 착한 사람이 없다면 그 사회는 야만의 사회와 다를 없습니다. 정치인에게 ‘착하게 살자’ 만큼 본질적이고 직관적인 구호는 없습니다.

인구 16만 명의 중구·영도구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넘칩니다. 이쪽 말도 일리가 있고 저쪽 말도 일리가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한정된 예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할지 결정하고, 규정이 잘못되거나 없다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을 대신해 구와 시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야 하고, 부당한 일에는 사력을 다해 싸워야 하는 게 정치인의 일입니다. 착하게 살지 않고 자기 잇속만 챙기는 사람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청년 정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많습니다. 젊은 정치지망생이 기성 정치의 틀에 갇혀 제대로 뜻을 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청년을 이용만 하려는 기성 정치인도 문제지만 청년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만 좇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 등원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청년당’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들은 오랜 기간 정치적 위기와 부침을 겪으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청년 정치인 양성에 주목했습니다. 독일 기민당의 ‘영 유니온’을 벤치마킹해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첫 결실이 국민의힘 내에 청년 정당 ‘청년의힘’을 발족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청년당 ‘청년의힘’이 기존 Top-down 방식의 중앙당 중심의 정치풍토를 Bottom-up으로 바꿔 정치 에너지를 활발하게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역 공약이나 상임위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인 부산 중구·영도구는 원도심이어서 도시재생 이슈가 현안입니다. 기존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마스터플랜으로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에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예컨대 트램(도면전차)을 도입해 사람과 돈·일자리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업을 오래전부터 구상해왔습니다. 제21대국회 시작과 동시에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초선 임기 4년 내내 최우선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18년간 기초·광역의원과 정당인으로 활동하면서 남들이 갖지 못한 소중한 경험과 경력을 쌓았습니다. 과거 현미경으로만 지역과 조례를 살폈다면 현재는 현미경과 우주 망원경으로 국정운영과 법을 살피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4년간 맡겨주신 6g의 국회의원 배치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4년 동안 착한 의정활동으로 마른 가지에 풍성한 잎이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민과 사회적 약자 대변하고 국민 통합에 앞장설 것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용입니다.

제21대국회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두 딸에게 부끄러운 모습은 절대 보이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오늘을 계기로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다져봅니다.

지난 100일 동안 국민과 거리감을 좁히고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조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성과가 있다면, 그때 만난 많은 분들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자신은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꺼이 노력해주는 분이 있었고, 나이 지긋한 어른도 쉽지 않은 용기를 내준 20대 친구들이 있었으며, 삶의 터전을 허망하게 잃은 가운데서도 이를 곳곳하게 헤쳐나가는 분들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용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위해 노력... '최속헌법' 통과

고(故) 최속헌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을 지인을 통해 접한 뒤 국회의원으로서뿐 아니라, 체육계 선배로서 그리고 두 딸의 아버지로서 최 선수의 원한을 꼭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당내에 TF를 만들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실



시해 가해자의 죄를 밝히고 문제가 지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논의와 토론을 거치며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했지만, 최숙현법이 제21대국회 첫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는 자식을 잃은 고통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노력해 주신 고(故) 최숙현 선수 부모님과 선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기꺼이 국회에 나와 증언을 해준 아직 어린 20대 다른 피해자들의 힘이 컸습니다. 그분들에게 배운 이타심과 담대함으로 앞으로의 의정활동 중 위기의 순간에도 주저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용기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 속에 국민이 보여준 소중한 가치 새길 것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와 이어지는 태풍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보면서도 위기를 곳곳하게 이겨내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남원 수해복구 현장에서 만난 한 어머니는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침수된 집기류를 닦고 내부 청소를 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하고 계셨고,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위로를 건네는 자원봉사자들도 있었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분들과 어딘가에서 따뜻한 찜 감자를 가져오시며 고마움을 표한 주민들,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응집력과 강인함을 보여주신 그분들이야말로 저에게 큰 가르침을 준 스승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는 일상생활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만들었고 특히 취업준비생과 자영업자,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예상보다 더 길어지는 경기침체로 하루하루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계속되는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는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어 여기저기서 더는 희망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타심, 용기, 강인함, 배려. 국민께서 지난 100일 동안 알려준 이 소중한 가치들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래통합당은 ‘국민의힘’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단순히 당명만 바뀐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지난 시간을 반성하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나가겠습니다.

저도 원내부대표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지도부에 전달하고, 이것이 우리 당의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혹여 지난 시간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이를 반성하고, 성과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격려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민들의 삶을 살피며 민심 그대로의 국회 실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제21대국회 출범 100일을 넘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과 약속 그대로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 활동의 목표에 조금이나마 다가서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처리와 내년도 예산심사,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기후재난은 여야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난 9월 22일 본회의에서는 개원 이래 유례가 없는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켜 하루가 다르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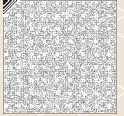
제21대국회는 여야 공히 일하는 국회를 약속하고 개원했지만, 아직 국민께서 보시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 데에 국회의 역할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코로나19 속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

저는 상반기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의당 원내대표가 되어 국회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합니다. 환경노



강은미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동위에서는 기후재난 시기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과 자원 순환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의당이 제시하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기후위기 선언을 미루지 말고, 국회 특위 구성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대책과 이행에 대한 점검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일터와 삶을 잃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8%에 달하는 건강보험 가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의료 안전망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처럼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으로 현재 50% 수준에 불과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저임금·비정규직·불안정 노동자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해 진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삶을 살피고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회에서 정의당을 믿고 지지해준, 정의당이 대변해야 할 시민들의 목소리가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특히 그간 진보정당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환경노동위 노동 소위원회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기후위기가 재난이 된 시기 그린뉴딜을 비롯한 새로운 사회를 운영할 모델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그린뉴딜

정책을 일찌감치 준비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뉴딜 종합계획이 새로운 사회계약이 될 수 있도록 대전환을 준비해가겠습니다.

시민들 손에 잡히는 의정활동 펼칠 것

저는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개원과 동시에 광주 서구 지역민들의 사랑방으로 지역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시민들 삶 구석구석을 살폈던 경험을 살려 시민들 손에 잡히는 의정활동, 내 마음 같은 국회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고인이 된 노회찬 의원의 ‘6411 버스에 탄 투명인간들을 위한 정치’를 기억하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정기국회에 산적한 과제가 많지만, 특히 미룰 수 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꼭 제정해야 합니다. 국회의 가장 큰 직무유기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일 7명이 일터에 나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천 명이 넘는 국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을 멈춰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담대한 결정과 책임을 다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초선·비례대표이지만, 정의당 원내대표로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위한 개혁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 담장 안으로 넘실대는 무지갯빛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정치도 간호처럼, 국민의 아픈 곳을 살피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입문한 지 100일. 제게 지난 100일은 낯설음을 극복하고 새 역할에 적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생활공간은 대구에서 서울로, 일터는 병원에서 국회로, 일은 간호에서 정치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 체계의 개선과 함께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인한 생활 방식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전환의 시기에 맞춰 저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간호사로서 38년간 현장에... 감염병 대응체계 만들어

저의 강점은 현장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간호사로서 38년간 현장에 있었고,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까지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간호를 총괄하며 보건의료인과 함께 감염병 대응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방역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고와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시작으로 전국을 다니며 지역의 의료기관과 방역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보건의료와 복지, 여성계 등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 토의하고 조언도 들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제1호 의안은 결의안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며 많은 공무원과 보건의료인이 고생했지만, 현장은 중앙



최연숙 의원
국민의당, 비례대표



통제 및 관리 시스템 부재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의료현장은 병상 및 인력 부족, 방역물자 조달 지연 및 분배의 미흡, 잦은 지침 변경과 적용의 어려움 등이 발생했고, 국민들은 생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활고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의료인들과 확진자 치료에 동참한 의료기관에 적절하게 보상하고,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며, 감염병 위기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장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첫 질의도 코로나19 환자를 현장에서 계속 돌본 의료진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3차 추경 예산에 반영하라는 것이었고, 결국 의료진 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 12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제1호 법안으로 감염·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집단 감염에 취약한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감염관리 강화, 재난당사자·가족·현장대응인력의 심리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3법(‘감염병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을 발의해 국회의원이 되기 전 내걸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중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심리지원을 담은 ‘감염병예방법’이 9월에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고령화와 감염병 유행이 반복되는 시대를 맞아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간호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간호사의 근로환경과 처우가 열악해 숙련된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보건복지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신종 감염병 대비 간호사 역량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등 제 임기 내에 가능한

한 많은 정책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없는 분, 희귀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분, 미혼모 등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분들이 필요로 했던 사항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첫걸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도록 하는 법안과 성폭력 관련 처벌을 받은 사람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저출생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92명, 올해는 더 떨어져 0.82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육아 문제 해결 등 여성과 가족 정책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국회포럼의 연구책임위원을 맡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쓸 예정입니다.

국회의원의 배지 무게 느끼며 책임 다할 것

저는 정치는 간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가 환자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보살피는 것처럼 정치는 국민을 이해하고 살피야 한다는 생각을 늘 신조처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어느덧 100일 일정의 정기국회가 한창입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국정감사부터 법안 심사, 예산안 심사까지 강행군을 이어가기 위해 신발 끈을 다시 묶어봅니다. 국회의원 배지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겠습니다. 6g의 무게가 아니라 5천178만 명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국회

제21대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제21대국회는 우리 정치사에서 특별한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은 국회입니다. 촛불탄핵에도 불구하고 촛불국민이 요구하던 개혁은 늘 의회의 문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정부의 개혁조차 험난한 길을 달리느라 속도를 낼 수 없었습니다. 매번 국가의 위기마다 국민들은 때로는 살신성인의 희생으로 직접 나서기도 했고 때로는 선거를 통해 위기돌파의 역학구도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국민들은 ‘자연된 개혁’을 풀어나갈 의회구성을 만들어줌으로써 제21대국회에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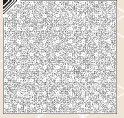


강민정 의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현장 교사 출신… 교육개혁 실현해야

늘 무대 밖에 있던 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연동형 비례제 덕분에 국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21대국회에 부여된 역사적 책임을 짊어진 300명 중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원 한 명은 최소 17만 국민을 대표합니다. 특히 저처럼 국회 역사상 드물게 현장 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에게는 50만 교사, 900만 학생과 그 부모들의 교육개혁 요구를 실현해야 할 숙제가 주어진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변곡점들을 지혜롭게 헤쳐나왔으나 아직 절차



적 민주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민 삶의 현장인 일상 속에서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교육에서의 경쟁은 줄어들 줄 모르고, 제도적·비제도적 갑질은 여전하며, 곳곳에서 자행되는 환경파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21대국회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동시에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에 강력한 경고음을 울린 세계사적 위기 극복방안을 찾는 임무까지 떠안았습니다.

저는 부족한 게 많지만, 제21대국회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신뢰를 보낼 만하고 유능한 분들이라 다행입니다. 경험은 다소 부족하지만 각 영역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기른 초선의원들이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국회에 새로운 피가 흐를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역대 최다 여성의원이가 당선되고 국회 최초 여성 부의장이 선출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의 다양성에 조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100일간의 경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거나 새삼스레 확인하게 된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 국회는 철저하게 다수당 중심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개선된 결과라고 하지만 비교집단체인 당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둘째, 지난 100일 동안 3천300개가 넘는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그만큼 지난 국회에서 국민생활과 밀접

히 관련된 법적 해결책들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셋째,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도 국회 밖 국민들과의 소통과 협력 없이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가발전 비전을 가지되 국민보다 딱 반 발 앞서 국민과 함께 나갈 때 국회는 현실에 발 딛고 우리 사회를 견인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수십 년간 쌓여온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저로서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정책 당국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실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의 일부이며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와 얽혀있는 교육이 나아갈 비전에 대해 끊임없이 궁구해야 합니다. 부분을 통해 전체를 읽어내고 만들어낼 역량이 요구됩니다. 잘할 수 있을까 싶지만 노력만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100일을 지내왔습니다.

희망 만들고 국민 삶 개선하는 것이 정치

희망을 만들고 그 희망에 다가가는 길을 열어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21대국회가 그 정치의 닳을 올린 지 100일이 되었으니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희망의 뱃길을 만들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잘 살아낼 거라는 인증식이 백일 잔치였습니다. 100일을 맞은 제21대국회 역시 주어진 소임을 끝까지 잘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그리고 그리될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몫에 최선을 다해나가기라 다짐합니다. 🍷

인재의 산실에서 창업의 산실로 변화 꿈꾸는 '관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를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秋分). 이날을 기점으로 밤의 길이는 점점 길어지고, 계절은 가을을 향해 치닫는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주말, 국립 서울대학교와 고시촌으로 대표되는 '인재의 산실'에서 젊은이들의 '창업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는 역동적이고 젊은 지역, 서울 관악구에 서 정태호 의원을 만났다.

정태호 의원을 만난 서울 관악구 도림천은 주말을 맞아 주민들로 붐비고 있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을 꺼리는 주민들도 주말만큼은 마스크를 쓴 채 가을 햇빛을 즐기고 있었다. 도림천은 예전에는 경기 시흥군이었으나 서울시로 편입된 후 도림천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현재에 이르렀다.

정태호 의원은 도림천 앞에서 "이곳을 포함해 인근 신원시장, 순대타운, 관악종합시장, 서원동 상점가 일대 등 신림 상권을 새롭게 부활시키는 '신림 상권 르네상스'를 4·15 총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공모에 선정돼 신림역 일대 상권에는 2024년까지 5년간 총 80억 원이 투입된다.

관악구는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영세업체로,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주축인 곳이다. 정태호 의원은 "그러다 보니 외부에 와서 소비를 해주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렵다. 청년들이 많이 찾는 이 지역을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





관악구 도림천에서



‘창업히어로4’ 창업센터에서



14:30



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과도 가까워 관광객들이 찾기에
에도 쉬운 장점이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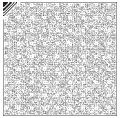
청년창업 지원하는 ‘신림 창업밸리’ 만들 것

정태호 의원은 대학동에 입주한 ‘창업히어로(Hero-
Ro)4’ 창업센터로 취재진을 안내했다. 이곳 입주 기업은
저렴한 임대료로 업무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창업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
원도 제공받는다. ‘창업히어로4’ 맞은편에는 ‘창업히어
로3’가 올해 12월 오픈할 예정이다. 정태호 의원은 “관악
구는 유독 젊은 층이 많은 지역”이라면서 “서울대의 우
수한 인력, 기술 등도 창업밸리 조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태호 의원은 신림동 고시촌이 있었던 대학동
‘녹두거리’를 찾았다. 이곳 고시촌은 1975년 서울대가 중

로구 대학로에서 관악산 아래로 옮기면서 형성됐다. 다
른 지역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한 밥집, 학원, 독서실 등
때문에 이곳은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의 ‘메카’
로 불리기도 했다. 정태호 의원은 “고시생들이 빠져나간
이 지역을 ‘신림 창업밸리’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곳에 1천 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유치할 계
획을 세우고 있다. 그는 꾸준히 신림 창업밸리 TF(태스
크포스) 회의를 열고, 관악구청, 서울대, 민간기업 등과
함께 창업밸리 조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태호 의원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청와
대 일자리수석’과 ‘광주형·구미형 일자리’다. 광주형·구
미형 일자리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그가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으로 있었을 당시 협상을 주도해 만
든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짜기
도 한 ‘전략통’이기도 하다. 그런 정태호 의원이 이번에



는 관악의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정태호 의원은 “이제는 대학동을 중심으로 ‘관악형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대한민국 인재 배출의 산실이었던 고시촌을 스타트업 창업의 산실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의 ‘전략통’답게 정태호 의원은 최근 당 전략기획위원장도 맡았다.

정태호 의원은 관악구 난향동에 위치한 버스종점을 찾았다. 그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에 이 버스종점은 종일 일을 하고 새벽에 퇴근하던 서민들의 애환이 어린 곳”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그간 지하철이 없어 교통 소외지역이었던 이곳에 경전철 난곡선 개통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경전철 난곡선은 현재 국토교통부 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중에 있으며 곧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전철 난곡선은 보라매공원~관악구 난향동을 잇는 노선이다. 서울시가 민자로 추진했던 난곡선 사업을 시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변경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악은 그동안 교통 소외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 사정이 다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셋강역에서 관악구 신림동을 연결하는 신림선 경전철이 2022년 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관악을 통째로 바꾸겠다”

정태호 의원은 ‘성과주의자’로 불린다. 4년 후에도 성과를 낸 국회의원으로 기억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관악에 확실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저는 1982년부터 관악구에서 살았고, 1991년 이곳에서 결혼했습니다. 중간에 미국 유학을 가기도 했지만 그간 한 번도 관악 외로 주소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관악의 변화를 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 정태호의 눈에도 그 변화가 성에 차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지난 4·15 총선 당시 ‘관악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그게 진짜 제 마음이었습니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글. 박민선 사진. 김지범



15:30



과거 고시촌이 몰려 있던 대학동 녹두거리



16:00



난향동 버스종점



전해철 정보위원회 위원장

이달 ‘청찬합시다’의 주인공은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이다. 지난달 그를 추천했던 전해철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늘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종배 의원은 전 위원장과 대학 선후배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함께 활동했던 인연을 설명하면서 “당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었던 것이 기억난다. 앞으로도 여야를 떠나 국정 고민을 함께하는 관계로 이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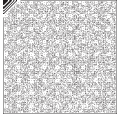
탄탄한 행정경력, 자타가 공인하는 ‘정책통’

충주에서 태어나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 의원은 음성군수, 청주시 부시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차관, 충주시장 등 지방과 중앙의 주요 보직을 30년 이상 경험했다. 탄탄한 행정경력 때문에 자타가 공인하는 ‘정책통’으로 불린다. 제19대국회 등원 이후 원내부대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거쳐 현재 제21대국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최근 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얼어붙은 경기를 회복시키고 점점 더 악화되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장 먼저 경제 활력과 민생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며 “코로나19 장기

진심어린 협치만이 진정한 신뢰를 얻는다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충북 충주시



화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일상 회복을 위해 코로나 방역 강화와 민생지원을 위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련 세법 개정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대책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대 여당이 탄생한 제21대국회는 공정과 정의로 대 표되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거대 권력 앞에 무너 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협치의 기본은 상대 존중인데 ‘공명지조(共命之鳥)’의 교훈을 생각하며, 정 쟁보다는 진정한 협치의 모습으로 국난극복의 가능성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충주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

충주는 이 의원의 고향이자, 제19대국회부터 내리 3선 을 한 지역구다. 덕분에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파악해 ‘지역 해결사’라는 별명도 얻었다. 지난 총선에서 그는 국가·공공기관과 우량기업 유치 공약 등을 충주 경제 활 성화를 위한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최근 ‘충주 바이오헬 스 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국내 최 초 바이오헬스 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충주 발전의 기틀 마련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충주를 중부내륙권 최대 첨단산업도시로 조성해 양 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충주에 정착하도록 해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꿈은 변함없습니다. 또,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선정, 상급 종합병원 유치,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등 많은 사람이 찾 아와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충주가 명실 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 력할 것입니다.” 🏠



이개호 위원장을 추천합니다

이종배 의원은 다음 칭찬 주자로 이개 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 성군)을 추천했다. 이 의원과는 혁신4.0연 구포럼의 공동대표로 “현장 목소리를 청 취하면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시려 애쓰는 분”이라 소개했다. “이 위원장님은 농·어 업 뿐만아니라 다양한 사업 분야의 어려 움과 고충을 함께 나누고 혁신적 해결책 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입니다. 농 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하고 현재도 농 해수위 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농어촌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 시기에 농어민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 리라 믿습니다.”

글. 윤성혜 사진. 임진완

마	부	정	제
馬	不	停	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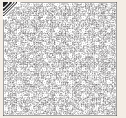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광주시을

“살기 좋은 광주 만들어 밥값하는 정치인 될 것”

지난 21대 총선에서 임종성 의원의 딸 임호선 양은 ‘딸바보 보다 광주바보’라는 피켓을 들고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유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임 양은 제20대 총선에서도 ‘아빠를 빌려드립니다’라는 피켓으로 아버지의 선거를 도왔다. 선거운동 이야기는 여러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임종성 의원은 “지역민들께서 딸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주신 덕분에 재선에 성공한 것 같다”며 활짝 웃었다.

임종성 의원은 어려서부터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말했다.

“도의원을 지내신 아버지는 해공 신익희 선생 때부터 민주당 정치인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유신정권과 군사정권 때도 광주에서 민주당 깃발을 지키셨지요. 덕분에 저희 집 앞에는 아버지를 감시하는 초소가 서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뭔가 큰 잘못을 하신 건가’ 하며 의아해하기도 했지요.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가 혼자 외



롭게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남들보다 한발 더 움직이자고 생각했습니다.”

한때 직장생활도 하고 개인사업도 했던 임종성 의원은 ‘언젠가는 꼭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직장생활을 할 때도 남들보다 한 두 시간 일찍 출근해서 미리 업무를 준비했고 영업을 할 때는 퇴근시간이라는 게 아예 없었지요. 그러다보니 다른 직원 서너 명의 실적보다 제 실적이 더 좋았습니다.”

임 의원은 광고 전단지를 돌리거나 명함을 돌릴 때도 항상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새겨 넣었다. 리틀 야구단과 광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창단했고 지역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다. 오랜 기간 지역민들과 호흡하며 인지도를 쌓아온 것이다. 2008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그는 2016년 여의도에 입성했고 올해 재선 의원이 됐다.

교육과 교통, 문화 인프라 구축이 지역의 과제

국회의원이 되면서 임종성 의원은 ‘마부정제(馬不停蹄)’라는 좌우명을 가슴에 새기고 산다고 했다.

“마부정제는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힘지라 할 수 있는 광주에서 제가 재선까지 하게 된 것은 광주시와 대한민국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의원이 되라는 유권자들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부정제는 걸어온 길에 취하지 않고, 오직 걸 어갈 길만 직시하는 저를 만들기 위해 항상 되뇌는 채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 의원은 “도시계획이 아닌 자연적 인구증가로 난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광주는 교육과 교통, 문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20대 총선 전 지역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인도가 없어 도로 옆을 걸어 하교하는 초등생들을 자주 봤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걸어가는 길을 뒤쫓아 가봤죠. 집까지 1.5km 거리에 2차선 차도만 있더군요. 근처에 물류센터가 있어 대형트럭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저도 걷기가 겁났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 아이에게 하굣길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무섭지만 익숙해졌다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인도 설치 약속을 했고, 총선 다음 해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 임종성 의원은 제 20대국회 1호 법안으로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안전 3법’을 발의했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을 제21대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다시 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는 그는 “이번엔 꼭 통과돼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가 안심하는 통학로가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소 찾아가는 의원실을 운영해 저녁이든 주말이든 지역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민원을 처리해왔다는 임종성 의원은 “요즘 코로나19로 지역민들과의 접촉기회가 줄어든 것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대신 SNS를 활용해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가 1987년 평민당 입당 후에 김대중 선생이 여의도 공원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지켜오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슴에 간직하며 광주시 발전을 위해 한 몸을 다 바쳐 밥값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

글: 김현아 사진: 김지범

“민간경제 실핏줄인 700만 소상공인 지켜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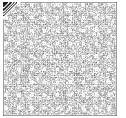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게는 ‘서민의 대변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중소기업인희망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그 역시 PC방을 운영했던 소상공인 출신이기도 하다. 지난 2월 4·15 총선을 위한 인재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영입돼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최승재 의원을 만났다.

강원도 홍천에서 2남 1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리더십이 있는 학생이었다고 한다. 최승재 의원은 “공부는 잘 못했는데 반 대항 체육대회를 하면 감독을 맡았고, 학급신문을 만든다고 하면 어느새 앞에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던 그런 학생이었다”고 회상했다.

최 의원은 “군 제대 후 일자리를 찾으면서 ‘세상이 쉽지 않구나’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군 제대 후 그



는 한 의류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일어나 열심히 일했고 타고난 성실성과 서글서글한 성격 덕분에 20대 후반에 관리직에도 올랐다. 그리고 의류 재고를 해외에 판매하는 중소기업을 세웠다. 최 의원은 “생전 만지지 못했던 큰돈도 벌었다”고 했다. 그리고 1998년 IMF가 터졌다. 외국에서 수금이 되지 않았다.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의류를 보관했던 커다란 창고뿐이었다.

고민 끝에 최승재 의원은 강남 선릉 주변에 PC방을 차리고 소상공인이 됐다. 당시 생소했던 서비스도 여럿 도입했다. 아르바이트생을 다른 업소의 두 배로 고용했고 PC방에 커피머신을 들여놓았다. 예약제도 도입했다. 몇 년 후 그는 PC방을 여섯 곳 거느린 자영업자가 됐지만 경영 악화로 모두 폐업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이 된 후 그가 어린 시절의 리더십을 다시 발휘하게 된 건 지난 2007년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으면서부터다. 당시 대형 게임업체와 PC방 소상공인들의 갈등이 불거지자 그는 조합 이사장으로서 업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 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도 지냈다. 이후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를 구성하는 창립준비위원회의 회장으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연합회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아무래도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과 다른 면이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아닌 소상공인만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초대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선출됐고, 2018년 연임에 성공해 지난 2월까지 회장직을 맡았다.

최승재 의원은 무엇보다 소상공인이 독립된 경제주체로 인정받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앞장서서 이끌었다.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지난해 4월 속초 화재 때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피해 소상공인들을 대변했다. 또한 그는 지난 2년 사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소상공인들의 단합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제1호 법안은 ‘소상공인 복지법’

그는 지난 4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철폐나 입법을 위해 제17대 국회 때부터 민원인으로 수없이 국회를 드나들었다”며 “소상공인 중에서 직접 국회에 들어가 이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끝에 국회에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경험을 인정받아 최 의원은 초선임에도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 ‘제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복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 50명이 함께 참여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발의한 법이었다. 법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으로 영업에 피해를 보거나 긴급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같은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은 민간경제의 싹틔줄로, 싹틔줄이 끊기면 결국 대기업도 흔들리고 국가 경제의 대동맥까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최선을 다할 테니 700만 소상공인들도 반드시 버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글. 박민선 사진. 임진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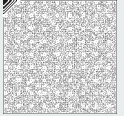
공공주택·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날짜	주최자	제목
9.8	김경만·이원욱 의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
9.15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자랑이 되는 공공주택이 온다
9.15	양경숙 의원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9.16	민형배·이동주 의원	대형유통점포 내 입점중소상인 보호방안 토론회
9.22	조승래·조명희 의원	비대면 국회 준비를 위한 토론회
9.23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미국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긴급간담회
9.23	이용호 의원	코로나19 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 토론회

김경만·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위기에 내몰린 저신용 무담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아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원욱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



●
**‘자랑이 되는
 공공주택이 온다’
 토론회**

기변동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경기충격 대응과 경제·산업변화 선도와 관련한 중소기업 금융을 평가하고, 특히 중소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이 아직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의 높은 정책금융 비중은 다른 나라 대비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낮은 데 기인한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민간금융의 역량을 강화, 민간 금융기관들이 정책금융 영역 중 상당부분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도 어디 손 내밀 데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한 번의 토론으로 해결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현장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진선미, 조웅천, 강준현, 김교홍, 김운덕, 김희재,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영순, 소병훈, 장경태, 정정순,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허영, 홍기원 의원)들은 9월 15일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자랑이 되는 공공주택이 온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함께 관련 정책 추진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이현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이 주제발표를 했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성남시 공공주도 재개발 등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 추진효과 및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김세용 SH 사장은 최근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 인구 구조의 변화

●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토론회

를 감안해, 주택과 더불어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신촌 동사무소 복합 개발을 하면서 빨래방과 편의점 등을 같이 넣은 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옥 GH 사장은 ‘3기 신도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한 기본주택 공급방안’을 발제했다. 그는 “역세권 고밀개발은 친환경·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증가된 용적률만큼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거와 업무가 연계된 직주근접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9월 15일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주택 시장을 총괄, 단속할 수 있는 ‘주택청’ 신설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방안으로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조직 개편·확충안,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원 신설안, 중앙행정기관인 주택청 신설안 등 총 3가지를 제시했다. 구 소장은 “주택청은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공공주택 개발 및 공급로드맵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주택정책을 실현할 수 있지만, 정부조직 비대화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미국·아일랜드 등의 사례를 들며 “단순한 시장감독기구 설립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주택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대책은 적절한 보유과세, 충분한 공급대책과 더불어 시장교란 불법행위 감독 대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 시장 관리와 감독 기능 강화로 부동산 대책을 완성할 때”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부에 전할 뿐 아니라 조만간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대표발의를 추진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형유통점포 내 입점중소상인 보호방안’ 토론회

민형배·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는 9월 16일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 소상공인들이 겪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대형유통점포 내 입점중소상인 보호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복합쇼핑몰의 불공정 사각지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입점사업자, 변호사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민형배 의원은 “복합쇼핑몰은 대규모유통업의 적용을 받지만, 입점 점주는 입점 본사와 임대계약을 맺기 때문에 실제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점사업자 보호를 법안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복합쇼핑몰-입점업체 불공정거래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입점업체가 복합쇼핑몰로부터 겪는 일방적인 영업시간 강요, 점포인테리어 비용 부담문제 등을 제기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중간관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의 타당성 검토와 중앙정부, 지자체의 권한 분담을 통해 중앙정부는 유통 현실에 맞는 법률안 정비, 지자체는 관리 및 모니터링 실행 등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 비대면 국회 준비를 위한 토론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국회 입법조사처는 9월 22일 ‘비대면 국회 준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국회에서도 영상회의, 원격 의결 및 출석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발제자와 토론자, 청중 모두 화상회의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국회 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의 비대면 국회 준비를 위한 법적 쟁점과 관련 법안 제출 현황 등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국회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 조승래 과장, 명지대학교 김주영 교수, 한양대학교 방승주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조진만 교수가 참석해 비대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긴급간담회

면 국회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기술적인 문제 해소, 해외 사례 등 비대면 국회 준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로 학교와 회사 등 사회 곳곳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정작 다양한 민생 현안들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국회만은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비대면 국회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명희 의원은 “국회가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 일정을 원활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확산으로 집합이 제한되는 변수를 줄여야 한다”면서 “비대면 국회를 대비하는 첫 시작으로, 참고인의 원격출석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9월 23일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간담회는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향후 한미관계에 미칠 전망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대 한반도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도 다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누가 당선되든 미국 대선 결과는 전 세계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치밀하고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책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냉철하고 현명한 외교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은 11월 미국 대선과 관련해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한미 관계가 어려운 쪽으로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은 어떠한 위치와 중요성을 차지할 것인가, 우리의 이해관계는 무엇이고 우



코로나19 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

리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새로운 안보 환경에 적응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9월 23일 ‘코로나19 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학계, 관계부처, 환자단체, 업계 등 여러 전문가들이 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 정부는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초 위에서 의약품 허가와 보험급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급속도로 변화 중인 신약 개발 패러다임을 따라가기에는 정책적, 제도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화두를 던졌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신약 접근성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은 건강보험 급여 지연”이라며 “급여 등재 조건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급여를 결정한 근거나 결정에 이르는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종현 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장은 “약제 급여 현황과 사용량 추이 등 약가협상에 참고가 되는 자료 공개에 있어 그동안 투명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며 “향후 약가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호 의원은 “신약 개발 소식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오롯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권을 가장 중심에 두고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각계의 지혜를 모을 때”라면서 “전문가 패널들과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환자 및 국민들의 의견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가 의료시스템을 강화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정리. 윤성혜

자영업자 지원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7건 처리

9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와 국가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지원을 우선 과제로 삼아, 자영업자 임대료의 부담을 완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코로나19 극복 법안을 다수 처리했다.

이 외에도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 처벌근거를 마련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 안전 강화 법안, 사생활 유출 등 성범죄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 관심 법안이 통과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소관)

코로나 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가 상가임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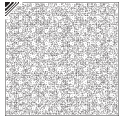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기회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해지 등을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두게 했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고,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 상한(5%)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감액 청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교육부 소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면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대학 현장에서 원격수업이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대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해 감염병의 대



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정부 대입정책은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되도록 하고, 관계 법령이 제정·개정되는 경우에만 공표 시한의 예외를 두고 있음).

또 재난으로 인해 학교 내 수업이 어려울 경우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수업의 수업방법·출석·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거나,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재난 상황 발생 시 등록금을 면제·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학의 원격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해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교육부 소관)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일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그 근거가 미비해 개정됐다.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실습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활동의 근거도 규정했다. 원격수업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 등의 근거를 마련해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교육부 소관)

최근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잦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커져 개정됐다.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사고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체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체육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소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가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특화된 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하자는 의견,

도로공사 시 주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돼 개정됐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원칙을 법률에 명시했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게 하고, 도로공사 시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해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 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도로공사 시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해 차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는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소관)

소방항공기의 관리·운영의 주체가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항공기 출동조정 및 운항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방항공기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구급대원이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외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응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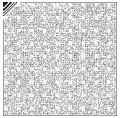
환자들이 구급차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구급차의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정안은 소방항공기의 체계적인 관리·조정·통제를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구조·구급활동 범위에 ‘구급차등의 이송’을 명시해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환자등의 통보의무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했으며 통보대상자에 감염병의심자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소위급사항을 소방기관등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소관)

382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 심사소위원회(2020. 9. 18.)에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 결과, 같은 취지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안됐다.

개정안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거짓신고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현장출동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소관)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돼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조소등의 사용을 3개월 이상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고, 그 중지 또는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또는 6월 이내 사용정지의 행정처분과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간 휴·폐업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대·중소유통 균형발전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됐다. 현행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준대규모점포에 관한 근거규정 및 규제의 존속기한을 2020년 11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의 등

록제한 및 조건부가 규정,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조항, 준대규모점포의 출점 및 영업 규제를 2025년 11월 23일까지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준대규모점포에 관한 근거규정 및 규제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전통상업·중소상인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2017. 5. 1.) 등 최근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사업장 안전·보건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데, 현행 법률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했다. 또 현행법상 외부 대행기관의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함으로써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사업장이 외부 대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고

용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현장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보건복지위원회는 추석 연휴 사회적 이동의 증가와 독감의 유행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시설의 관리자 등이 감염병 예방법상의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감염병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예방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이후에 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로 소진감을 호소하는 감염병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의료인 등 현장대응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동 법안은 방역당국의 방역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보증서 발급기관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보증금 제도의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됐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이외에 분리수거·외곽청소 등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법률이 공동주택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일부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를 낳기도 했다.

개정안은 시·군·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보증서 발급기관의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하자보수와 관련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에서 통합해 관리하는 부분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입주자의 주거권 보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이 알려진 후 2차 피해나 조직 내에서의 불이익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문제가 심각해 개정됐다. 현행법에서는 불이익조치를 ‘해고 혹은 그 밖의 불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유형을 구체화했다. 불이익조치의 유형을 신분상실, 부당한 인사조치, 성과평가 및 상여금 등에서의 차별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2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해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불이익조치의 가능성이 감소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

최근 핵가족화 등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자녀돌봄이 약화되고 있어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장소로 공동주택을 명시해,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및 공동돌봄 공간으로 규정했다. 공

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독려로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또는 변경 신고 시 일정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폐지·일시적 운영 중단 신고 및 운영재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를 병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양육 지원을 강화하며,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의 감소를 도모하고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 강화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 기대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초부터 불거진 코로나19 사태에 근로자들은 가족돌봄휴가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무급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10일 이내로 하루 5만 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어 지난 2월 23일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후 6개월 이상 유지되고, 급기야 지난 8월 30일 수도권 일대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이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의 조치가 장기화되고, 감염 우려 등으로 자녀의 가정 돌봄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보완 필요성이 높아졌다.



송주아 전문위원
환경노동위원회



9월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서둘러 법안심의를 하고, 정기국회에서 가장 먼저 이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난 발생시 가족돌봄휴가를 연 10일 범위 내 연장

2020년 9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 추가하여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했다.

그리고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어서비스 확충으로 농인들의 알권리 보장해야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2016. 8. 4.)

TV 뉴스의 화면 오른쪽 아래 작은 동그라미 속에 머물던 수화통역사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표자와 함께 나란히 출연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수어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돼 최근 국회에서도 72년만에 기자회견시 수화통역사가 함께 등장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농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사)한국농아인협회를 찾아 ‘한국수화언어법’의 내용과 개정과제를 알아봤다.

국어와 동등한 지위 갖춘 ‘한국수화언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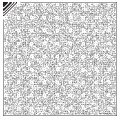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를 말로 배울 수 없어 ‘보이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보이는 언어가 ‘수어’이고,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농인’이라 한다. ‘한국수어’는 ‘한국수화언어’의 준말로 한국어나 영어와 같은 독립된 언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농인은 37만 7천여 명이고 국가공인 민간자격 수어통역

사 자격취득자는 1천818명이다. 예전에는 수화라고 했지만 지금은 국어와 동등한 언어임을 강조해 수어라고 쓴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도 농인에게 모어는 수어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지난 2011년 장애인단체와 농인들의 법 제정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여론이 조성돼 제19대국회 막바지인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해인 2016년 2월 3일 공포, 8월 4일 본격 시행됐다.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장은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은 음성언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정보습득에 제한을 받아 가정을 비롯해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우리 사회는 수화를 통역으로만 취급하며 언어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농아인들은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을 위해 1인시위 등을 펼치며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5년



마다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시행과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해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이 밖에도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해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어통역 보완, 수어교육의 실효성 과제

하지만 법 제정 이후 수어에 대한 환경변화는 매우 느리다. 재난방송에서 수어통역을 의무화한 것도 지난해부터인데 장애인 단체가 지난해 4월 강원 고성 산불 보도가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에 미흡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난 뒤부터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대국민 담화나 주요 정책, 재난 상황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올해 총선 개표방송에선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 자막으로 수어통역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농인들에게 한글은 제2외국어나 다름없다고 한다.

이소현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수어통역사는 “대다수의 농인들은 문장이 길어지면 잘 이해하지 못한다. 마스크 요일제·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문자로 된 안내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문의가 많다. 그만큼 농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변승일 중앙회장은 “현재 법에 명시된 부분이라도 정부가 잘 시행해줬으면 좋겠다. 수어에 대한 평생교육이 중요한데 전국 17개 시·도 중 수어교육원이 현재 4곳밖에 없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은 많은데 농인을 위한 영상도서자료는 관리가 안 돼 있다. 수어영상도서



8월 7일 열린 '수어의 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아인협회에 따르면 전문 수어통역사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한다. 현재 수어통역사들은 법원·병원·교육 등 전문통역이 필요한 곳곳에 구분없이 투입되고 있어 하나뿐인 수어통역사 자격증 제도의 세분화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한국농아인협회는 국립국어원과 함께 8월 7일 ‘한국수어의 날’ 제정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변강석 강남대 외래교수는 ‘한국수어와 한국농인의 얼’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본인이 농인 당사자로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풀어냈다. 변강석 교수는 “수어의 날이 농인이 더 이상 억압받는 존재가 아닌堂堂하게 선 존재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소현 수어통역사는 “농인들도 훌륭한 인재가 많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 부족으로 가난이 대물림되기 쉽다. 농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농인과 수어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으로 다 같이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글: 고영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영국 의회의 원격회의 운영 사례



임종수 영국 주재관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다. 이곳 영국도 예외가 아니었고, 오히려 가장 걱정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물론, 영국 의회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마치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하는 영국 하원의 좁은 본회의장과 밀집한 회의 상황¹⁾을 생각해보면 의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영국에 입법관으로 부임한 지 겨우 한 달 남짓된 시기, 영국 의회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나가는 모습을 매일 뉴스와 신문으로 확인하면서 영국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에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영국 의회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여 의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해온 역사적인 변화 과정과 그 운영 상황을 하원의 사례를 통해 되짚어보고자 한다.

3월: 의회 출입 제한 및 상임위원회 원격회의 도입

지난 3월 초 100명 수준이었던 영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중순이 되자 3천 명을 돌파하면서 급속하게 증가했다. 3월 19일 학생들의 등교 중단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확산방지 조치가 연속해 발표됐다. 하원 절차위원회(Procedure Committee)²⁾는 연속된 긴급보고와 회의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며, 하원의장은 내각 의회장관(the Leader of the House of Commons), 절차위원회,

1) 영국 하원 본회의장에 의원이 앉을 수 있는 의석은 약 420개 가량으로, 650명의 하원의원 정수와 비교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총리에 대한 대정부질문이나 중요 안건에 관한 토론이 있는 날에는 본회의장 의석을 다 채우고도 모자라 회의장 입구에 서서 회의내용을 청취하는 의원도 있다.

2) 영국 하원 절차위원회(의사규칙 제147조)는 의사규칙의 운영 및 제·개정 등을 포함한 하원 의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Select Committee)이다.



하원 사무처와 협의하며 의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영국 의회의 최초 대응은 의회 내 밀집 최소화를 위한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였다. 3월 16일부터 의회 출석 목적이 아닌 방문은 제한됐고, 지역구민과 일반인의 의회 투어와 방청, 학생들의 의회 교육프로그램은 중단됐다. 의원친선협회 및 의원연구모임이 외부인을 의회로 초청하는 것 역시 허락되지 않게 되었다.

이후 3월 24일 하원은 임시의사규칙을 의결하여 우선 상임위원회부터 이메일, 전화, 화상연결³⁾ 등을 통한 원격회의를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재무위원회 등 정부의 코로나 대응조치와 긴급재정지원 등에 관한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계속될 수 있었다.

이 시기 상임위 원격회의 도입이 가지는 의미는 당시 영국의 확진자 급증 상황과 정부의 비상조치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생각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영국 의회는 매년 부활절 시기에 휴회에 들어가는 데, 금년 부활절 휴회가 끝나고 의회가 복귀하는 4월 21일까지 각 상임위는 원격회의 방식을 통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회가 확인해야 하는 정부의 비상조치들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상임위의 원격 화상회의는 공중파인 의회방송(BBC Parliament)을 통해 연일 생중계됐다.



영국 국회의사당

4, 5월: 원격화상 본회의 도입과 원격투표 실시

부활절 휴회를 끝낸 영국 하원은 4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본회의장에 직접 참석하는 인원을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원격화상 방식으로 출석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어서 4월 22일에는 최초로 원격화상 본회의가 영국 하원에서 실시됐으며, 원격투표에 관한 임시의사규칙 또한 같은 날 의결됐다. 이는 약 20일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임시조치였지만, 영국 의회가 기존에 보여왔던 의회 전통과 관례에 관한 깊은 신뢰를 감안하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유선 마이크와 의회 방송용 카메라를 제외하면 변변한 전자 기기나 장치가 거의 없었던 하원 본회의장에 여러 개의 대형스크린이 설치되고, 의원들이 이 스크린을 통해 화상으로 질의에 참여하며, 원

3) 처음 상임위원회 원격회의에는 MS Teams 프로그램이 사용됐으나, 이후 보안 및 정보보호 기능을 추가한 의회 전용 줌(ZOOM) 프로그램을 활용해 운영됐다.

격으로 표결하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번에 도입된 원격화상 방식의 본회의는 대정부질문, 긴급질문 및 장관연설에 대한 질문에 한해 적용됐다. 이는 정부감독 기능을 중시하는 영국 의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심사만큼이나 총리와 장관에 대한 의원들의 답변이 중시되기 때문이다.

영국 의회에서 연간 처리되는 법률안이 30건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국 국민들은 법률안 심사보다 의원들의 정책 질의와 장관의 답변을 의회 본연의 모습으로 여기는 것으로 느껴졌다.

6월 이후: 의회 정상화와 축적된 경험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예산안, 브렉시트 관련 법률안 등 산적한 안건 처리가 필요했던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6월 2일 영국 하원은 기존의 직접 출석회의의 방식으로 환원됐다. 물론, 본회의장 참석인원은 50명 이내로 여전히 제한되어 의원들은 질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회의장에 입장·퇴장하는 방식이 유지되었고, 의원들의 밀집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찬반로비 표결 방식⁴⁾이 도입됐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한 의원들을 위해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즉,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 제한 사

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화상으로 출석 및 질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표결 시 대리투표자를 지정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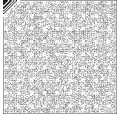
지난 3월 이후 영국 의회에서 도입했던 원격화상 회의에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원격화상 방식으로 개최된 첫 하이브리드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 중 화면이 끊어지는 일도 발생했다.

원격회의 및 원격투표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의 보안문제 역시 남아 있는 숙제다. 700년이 넘는 영국 의회 역사에서 지난 6개월은 의회 구성원 모두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이를 통해 또 하나의 값진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영국 의회, 위기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

가을이 왔음에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위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회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와 합의 정신으로 영국 의회는 위기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의회에서 의원들과 장관들이 주고받는 열띤 정책토론을 지켜보면서 영국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리라 생각된다. 🇬🇧

4) 찬반로비 표결 방식은 표결 선포 이후 의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 복도로 이동해 설치된 표결기에 출입증을 태그(tag)하는 방식이며,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2m 간격으로 줄을 서서 표결이 시행되고 있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수석전문위원 비대면 간담회 개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9월 28일 국회 종합상황실에서 2020년도 제3차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19개 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질 각 위원회별 현안과 방역조치 대책을 보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정기국회로 바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국에 설치될 국정감사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국회재난대책본부, 상임위원회가 서로 신속하고 긴밀한 공조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비대면 회의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과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수석전문위원 19명 등 총 27명이 참석했습니다. 🍵

글. 윤성혜 사진. 유윤기

재난지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20-07-28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2020-08-04 본회의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국회,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관련 현안질의 등 열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KBS 비판

9월 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검언유착 오보와 콘텐츠 경쟁력 약화, 수신료 등과 관련해 한국방송공사(KBS)를 연이어 비판했다.

검언유착 오보와 관련, 황보승희 위원(국민의힘)은 “가이드라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일선 기자가 확고한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기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조명희 위원(국민의힘)은 “EBS는 뽀로로와 팽수로 100억 원을 벌었지만, KBS는 경영 적자를 회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콘텐츠 역량 저하를 지적했다. 허은아 위원(국민의힘)은 “수신료 강제 통합 징수를 폐지해 국민이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KBS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준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KBS가 이번 정부 들어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받은 제재가 10번”이라며 “무죄추정원칙을 지켜야 하는 법조 보도 오보가 최근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자구 노력으로 제작비를 절감하다 보니 외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로부터 제작비 지원을 받았다”며 “국내 업체는 상생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외국 업체로부터 받는 것은 콘텐츠 경쟁력 약화 내지는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위,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9월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서욱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대응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방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안보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군사활동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남북 교류와 협력을 적극 지원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됐다. 여당 위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공세에 나섰다. 설훈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이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홍영표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당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어떤 위법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하태경 위원(국민의힘)은 질의 시작부터 “추 장관 아들 건의 의미를 후보자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후보자는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서는 “군이 미흡했다”고 했고, 특혜 여부를 따져보라는 요구에는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서욱 후보자는 “북한이 지킬 수 없는 내용을 9·19 남북군사합의에 포함했다”는 윤주경 위원(국민의힘)의 질의에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지키기 위해 대체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북한군이 접경지역에서 해안포를 개방한 데 대해 “남북 간 군사 대화를 해보면 갯도 진지에 습기가 차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과연 이를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보는 게 맞는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간의 대화는 조금 단절됐지만, 지상, 해상, 공중에서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덧붙였다.

서욱 후보자는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라는 홍준표 위원(무소속)의 질의에는 “현재 저희 판단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서 후보자는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 제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9월 16일 전체회의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했다. 9월 11일 정부로부터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됐으나, 영세농어업인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외식산업의 위축 등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소득 감소를 고려해 영세 농어업인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해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는 국민안전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세 농어업인은 지원 대상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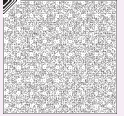


기획재정부, 재정준칙 발표 논란

9월 21일 열린 기획재정부위원회(위원장 윤후덕) 전체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마련하기로 한 재정준칙이 논란이 됐다.

서병수 위원(국민의힘)은 “지난 6월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준칙을 8월 국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태흠 위원(국민의힘)도 “답하는 과정에서 보면 말이 바뀌는데,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일정이 늦어진 점이 있다. 1차적으로 9월 말까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여당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기동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은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당청과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신중히 접



근해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하는 절차적 과정을 밟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8월 말에 후다닥 검토한 것으로 발표할 수도 있었지만 짚어 볼 것이 생각보다 많았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동시에 국가 채무나 수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관련 긴급현안질의

9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실종이 CCTV(폐쇄회로)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해경이 어업지도선 내의 CCTV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공교롭게도 (실종자의) 슬리퍼 신발이 발견된 장소가 우연선 밑쪽인데, 그 지역이 CCTV 사각지대”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번 사건 인지 경위에 대해 “꽃게잡이철이 한창이어서 보통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불법어업 단속을 해왔다. 무궁화호 1호 해양승선직 1항사 역할을 맡고 있는 직원은 보통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야간당직을 서고 오전 중에 잠을 잔 뒤 점심 식사 후 정오부터 당직을 서게 되어 있는데 식사를 하러 오지 않아서 사람을 보내서 찾아봤다”고 말했다.

이어 “찾아보니까 없어서 바로 선내 수색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실종을 확인하고 바로 본선에서 해양경찰청에 수색 및 구조요청을 해서 지금에 이른 상황”이라며 사건 발생 시간은 21일 12시경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의에 나선 이만희·이양수 위원(이상 국민의힘)은 월북 시도나 단순 실족사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추궁했으나, 문 장관은 국방부와 해경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고 정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선내 고무보트를 비롯해 다른 없어진 물건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해 긴급현안질의는 10여분 만에 짧게 끝났다. 🍵

글: 박민선

“신속하고 빈틈없는 방역시스템으로 국회 코로나19 대응”



민영준 비상업무관
비상계획담당관실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대응 실무를 담당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실의 민영준 비상업무관을 만나 국회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주요 업무에 대해 들어보았다.

Q. 민영준 비상업무관께서는 군인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국회에서 근무하게 되셨는지요?

A. 저는 1992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23년 동안 GP(Guard Post,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OP(General outpost, 남방한계선 경제초소) 경계부대, 수도방위사령부, 한미연합사,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며 DMZ 작전과 JSA 상황 관리, 동원 및 통합방위작전 지원 등 작전 및 계획업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또 라이베리아 UN 옵서버 등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23년간 군에 몸담았다가 영관장교로 전역한 후 국회의 비상대비 담당 공무원(5급) 선발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고, 2014년부터 비상계획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비상계획담당관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 소개해주십시오.

A. 비상계획담당관실은 비상상황에서 국회의 기능유지를 위한 전시대비 업무와 평상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조정 및 통제하는 곳입니다. 전시대비 업무로는 비상대비계획 수립, 비상대비연습(국회 을지태극연습),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훈련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국회 내 테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나 화재 및 지진 등의 재난에 대비해 국회 안전관리규정과 매뉴얼을 작성해 관리하는 것도 주요 업무입니다.

Q. 국회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A. 올해 초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비상계획담당관실과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하고, 8월 이후



‘국회 재난대책본부’를 운용하면서 국회 안전관리 규정에 기반한 코로나19 방역 매뉴얼을 마련해 상황을 관리해왔습니다. 특히 국회내 코로나19 발생 상황별 ‘액션 플랜’을 담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코로나19 상황 대응 계획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인데요. 이 시나리오는 11가지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선정하고 각 상황마다 시간대별·부서별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들을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신고가 들어온 후 대응 과정을 자세히 소개해주시오.

A. 일단 코로나19 관련 신고가 국회 안전상황실로 접수되면 국회 재난대책본부 상황대응반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준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재난대책본부 회의가 소집되며 국회 차원의 대응계획을 검토해 시행합니다. 국회 직원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해당직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에 대한 조치와 방역소독 범위 등을 미리 구상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방역당국과 협조해 접촉자 격리, 건물 전체 또는 부분 폐쇄,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중요 회의를 조정 또는 연기합니다. 선별검사를 받은 사람이나 자가격리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보건당국의 해제 승인이 있어야 국회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9월 23일 기준) 국회안전상황실로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신고 건수는 총 613건입니다. 모든 신고 건마다 이런 과정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진행하다보니 8개월여 동안 국회재난대책본부 상황실은 밤낮이나 주말도 없이 가동돼왔습니다.

Q. 국회의 하루 출입 인원을 고려해보면 코로나19 발생률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A. 담당부서뿐 아니라 국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조심하도록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했던 것이 코로나 발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국회의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신속하게 재난대책본부가 소집되고, 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직원들에게 문자나 방송으로 안내하고, 관련 직원 조치와 방역소독 등이 연계되도록 대응체계가 작동했던 것도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Q.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A. 우선 본인이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선별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동거 가족이나 최근에 만난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반드시 국회안전상황실(6788-2000)로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선별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야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둘째는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실 안이나 화장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몸에 이상을 느끼면 집에서 쉬면서 몸 상태를 체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출입증 인증 후 청사 출입, 출입자 체온측정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글. 김현아 사진. 김진원

NEWS

9/18 박병석 의장, 정필모 의원 국회방송혁신자문관 위촉



박병석 국회의장은 9월 18일 의장집무실에서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을 국회방송혁신자문관으로 위촉했다.

박 의장은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국회방송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면 좋겠다”며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국회방송이 되도록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이 국회방송을 통해서 의정활동의 이해를 높이고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국회방송 혁신TF와 함께 국회방송 혁신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마다 다른 국회방송의 채널번호 단일화 및 채널번호 두자리수 하향조정 등을 통해 시청자 접근성을 향상시켜 미국의 의회방송인 C-SPAN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촉식에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9/23 박병석 국회의장,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마스크 전달



박병석 국회의장은 9월 23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전국 지역아동센터 마스크 전달식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배우며 함께 꿈꿀 수 있는 소중한 곳”이라며 “이번 200만 장 마스크 전달은 아이들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장은 “제가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200만 장이라는 마스크를 기부해주신 안순기(췌)온누리플랜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전달식을 주최한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밝은 모습으로 지내고, 센터에서의 경험이 먼 훗날의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기부한 200만 장의 마스크는 전국 각지에 있는 4천300여 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될 예정이다.



국회, 디지털 대혁신을 위한 온택트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는 9월 3일 국회 종합상황실에서 ‘국회 디지털 대혁신을 위한 온택트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사태가 앞당긴 초연결·뉴노멀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 국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회 측 최소한의 현장 참석자와 전문가그룹 간 화상회의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디지털 국회 대혁신을 위한 입법 지능화 필요성과 추진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디지털 국회 추진단’에서 활동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정지원 아이디어와 지능형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방안 등 국회의 디지털 개혁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국회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병관 디지털혁신자문관과 디지털 국회 추진단이 협업해 국회의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인 ‘국회 디지털 대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국회와 국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디지털을 통해 정보의 접근 편의성과 활용성을 향상시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믿음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아세안의회총회’에서 옴서버국 대표연설



코로나19 장기화 속 글로벌 위기 극복과 아세안(ASEAN) 회원국 및 옴서버국의 결속을 위한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 제1차 본회의가 9월 8일부터 3일간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주호영 옴서버국 대표단장이 참석했다.

주호영 단장은 연설을 통해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으로 작년 기준 한-아세안 상호 교역은 1천534억 불 수준이었고, 아세안 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35억 불을 기록했다”며 “공고한 한-아세안 협력 관계와 아세안 교역국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NEWS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총 29차례 아세안 의회총회에 참석해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지지하고, 아세안 의회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아세안의회총회(AIPA)는 아세안 회원국 의원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197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옵서버 국가로 제2차 AIPO총회(AIPA 전신) 이래 총 28차례 참석했다.

“코로나 시대, 각국 의회의 원격회의 동향은?”, ‘해외의회 포커스’ 제7호 발간



국회사무처는 9월 18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각국 의회의 원격회의 운영 현황을 담은 ‘해외의회 포커스(제7호)’를 발간했다.

국회사무처 국제국은 지난 8월, 국회 주재관을 통한 8개 국가

10개 지역에 대한 ‘각국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현황’을 발간했다. 이번 해외의회 포커스(제7호)는 24개국 및 유럽연합(EU) 의회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세계 주요국의 원격회의 및 원격투표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국회의 원격회의 도입 논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가 중 위원회 회의의 경

우 일본을 제외한 23개국 및 유럽연합(EU) 의회가 원격회의를 허용하고 있고, 본회의는 영국, 루마니아 등 15개국 및 EU에서 원격회의 방식의 회의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격회의 도입 방식에 있어서 미국(하원), 영국, 독일(하원) 등과 같이 의사 관련 법·규칙, 결의안, 동의안의 제·개정 등을 통해 원격회의 실시를 명문화한 사례도 있으나, 기존 법령을 유추 해석하여 원격회의를 허용하는 국가(중국, 인도 등)도 있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상임위 회의장 비대면 회의체계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한편, 원격회의 도입에 필요한 관련법 발의 등이 추진되고 있는바, 이번 자료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회의 운영 방식 논의 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사무처,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국회사무처는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126명을 9월 18일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8월 22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2천939명이 접수, 1천 77명이 응시해 선발예정인원 44명 대비 24.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30.4 대 1)에 비해 낮아진 수치이다. 합격선은 기계직이 81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서직(일반) 80점, 경위직(일반) 79점, 속기직(일반) 및 전산직(일반) 73점 순이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27.8%(35명)로, 지난해 29.7%(36명)에 비해 낮아졌다.



국회 인사 :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송대호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대구 계성고, 경북대 행정학 학사, 미국 시라큐스대 경제학 석사, 서강대 경제학 박사 수료
- 입법고시 11회, 상공위·과기정위·예결위 입법조사관, 법제실·국제국·예결위 심의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 산자위·기재위·외통위 전문위원, 국제국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산자중기위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충남 신평고, 서울대 사범대학 학사, 미국 아이오와대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입법고시 13회, 농해수위 입법조사관,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장, 운영지원과장, 과방위·교육위 전문위원, 감사관, 국회의정연수원장,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인사 : 개방형 공모직(국장급)

한웅헌 문화소통기획관



- 동인천고, 서울대 동양사학과 학사
- 광고대행사 LGAD 기획,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상무, 덴츠미디어코리아 사장, LG전자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총괄

이표재 비상계획관



- 서울 성동고, 육군사관학교(44기), 육군 대령 전역, 국방대 안전보장학 석사, 연세대 정치학 박사
- 합참 전략기획 담당, 국가안보실 행정관, 국방부 개념기획팀장, 국방대 대외협력실장, 육군본부 선임인사검증위원

NEWS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제18차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개최



한국학술정보협의회(회장 현진권 국회도서관장)는 9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제18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라 현장 참가 없이 국회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현재 4천71개 도서관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 협의체로, 매년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를 통해 최신 정보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논의한다.

이번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는 '인공지능, 도서관의 미래 그리고 혁신'이라는 주제로 현진권 국회도서관장과 서울대 교수 겸 시위원회 위원장인 최양희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는 Microsoft, LG전자, IBM 등 관련 업체들의 조직혁신을 소개하는 콘퍼런스가 진행되어 인공지능을 토대로 하는 업무 및 조직혁신 경험을 공유했다.

국회에산정책처, '2020 대한민국 지방재정'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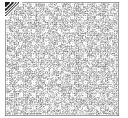
국회에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이전재원과 지방재정의 연계를 통해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9월 21일 '2020 대한민국 지방재정'을 발간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일부이자 중앙정부와 구분되는 지방정부로서 그 역할이 확대됐으며, 2020년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의 통합재정 사용액 규모는 322.1조 원으로 국가 통합재정지출 규모의 49%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중앙·지방정부 사이의 재정관계에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불균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되어왔다. 국회는 이를 주의 깊게 인식하고 효과적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2020 대한민국 지방재정'은 '제1부 지방재정의 현황', '제2부 지방재정의 성립과 관리',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해' 등 총 3부로 구성돼 있으며, 최신 자료에 근거한 지방재정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재정분권 이행경과 등 주요 지방재정 관련 변화 사항을 적극 반영했으며, 지방재정 지표 국제비교 및 추이분석, 지방채무 현황과 전망, 지방



재정 관련법령 제·개정 현황 등을 신설하여 최근 지방재정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와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세계헌법학자대회의 ‘Global Youth Intensive Program’ 참여



9월 14일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차세대 리더로 기대되는 세계 각국의 젊은 헌법학자들에게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 사례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해 강연했다.

‘Global Youth Intensive Program for the Leading Scholars’라는 이 프로그램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가 후원하여 세계헌법학자대회 조직위원회가 매년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각국의 젊은 헌법학자들에게 대한민국 법제에 대한 연구를 교류하는 학술대회로서, 이번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대체하게 됐다.

이날 김하중 처장은 대한민국 헌법상 권력구조의 특징, 헌정사 속에서의 국회, 국회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한 후, 국회입법조사처가 민주화 이래 더욱 권한과 역할이 커진 국회의 입법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호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호(표제: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를 9월 3일 발간했다.

박성원 연구위원이 저술한 이 보고서는 ‘보존분배사회’를 국민이 원하는 선호 미래로 도출했다. 보존분배사회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과 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며 양극화 완화를 위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다.

박성원 연구위원은 “보존분배사회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은 인류 공동의 난제인 지구 온난화에 모든 지혜를 모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수시로 인류를 괴롭힐 세계적 감염병에 생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2019년 11월 전국에 거주하는 502명의 시민과 숙의토론을 진행하고 65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이 보고서를 포함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afi.re.kr/nafi/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인에서 입법조사관으로



박소영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멀티미디어 및 이동통신 연구실”. 내가 10여 년 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컴퓨터공학부 대학원 명칭이다. 어떻게 하면 와이파이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지, 네트워크에 콘텐츠를 어떻게 배치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던 연구생은 이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통신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와이파이 속도 대신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콘텐츠 배치 방식 대신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서비스사업자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연구실 시절을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나도 아직 통신 분야에 몸담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국회에서 입법 관련 업무를 하게 될지 10여 년 전의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국회에 들어오게 된 경로는 짧지 않았다. 대학원 연구실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가의 과학기술 제도를 경험했는데 지나친 행정 규제가 연구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통신 분야에서 표준화 작업, 특허 분쟁 등을 접하다 보니 과학기술 발전에 영향력 있는 법이나 제도와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과학기술 관련 제도와 정책에 보다 직접 기여하는 방향으로 걸어왔고, 법무법인과 과학기술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공공기관을 거쳐 작년 하반기에 국회입법조사처에 들어오게 됐다.

직접 작성한 조사·분석 내용이 국회의원 입법 근거로 활용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입법, 사법, 행정 분야를 모두 조금씩 경험해보았다. 사회에 법이 적용되는 과정을 회사 업무 프로세스에 비유해보면, 입법은 문제를 발굴하고 적절한 목표와 방법을 수립하는 ‘전략·기획’ 단계이고, 행정은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실행’ 단계, 사법은 기획과 실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성과 평가’ 단계일 것이다. 모든 단계가 다 의미와 역할이 있지만,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국회에서 근무해보니 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즉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책임감이 묵직했다.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5G 단말기 판매 고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담당 부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가 작성한 조사·분석 내용이 국회의원 입법의 근거로 활용되는 사례를 접하니 입법조사 역할에 깊은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된 국회 소속기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과 행정부 견제 및 감시 활동을 위해 연간 1만 건에 가까운 입법조사회답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주요 현안을 능동적으로 발굴하여 보고서를 통해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국회 입법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26명 정원으로 큰 조직은 아니지만, 각 분야의 담당 입법조사관들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연구에 임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 업무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접할 기회도 많다. 지난주에는 동료 조사관이 점심시간에 고(古)지도를 활용해 함흥시 역사를 설명해주었는데 이런 재미가 어디서 가능할까 싶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정치행정조사실, 경제산업조사실, 사회문화조사실과 행정·기획을 담당하는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나는 이 중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에 소속돼 있다. 과학기술·ICT·방송 분야가 급격히 변화하는 만큼 매년 새로운 내용을 익히며 적시성 있는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디지털 뉴딜 시대의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와 입법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고, 제21대국회 개원 이후 국가연구개발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지상파방송 개선, 개인정보보호, 디지털범죄 등에 대한 10권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제 2년 차, 내 국회 생활은 이제 시작이다. 아직 배울 것도 많고 경험할 것도 많다. 국민의 요청에 따라 법·제도가 진화해가는 과정에서 나도 함께 성장하고 의미 있는 발자국을 하나씩 만들어가길 바란다. 🍵

청년, ‘도움을 받는 존재’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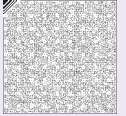
김선재 단장
한국사회공헌협회 청년챔프단

스무 살. 청소년이라는 딱지를 벗어던지고 청년이 됐다. 청소년의 딱지를 떼고 자신감으로 중무장해 대학에 진학했고, 군대도 다녀왔다. 스스로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을 이행한 것이다.

그러나 군 제대 후 청년이 되기 전까지 규격화된 틀에 갇혀 살았던 내 모습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틀을 벗어나 청년만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의문과 ‘청년의 잠재력으로 사회에 도움이 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청년의 잠재력’으로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

실제로 기업, 비영리단체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은 모두 접촉했다. 한 30군데 정도 됐던 것 같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돌아오는 답변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드릴지 모르겠네요”라는 말뿐이었다. 청년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단정짓는 답변이었다. 분명 인생 선배들은 청년들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고, 이 잠재력을 통해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아니었다.

그러던 중 ‘한국사회공헌협회’에서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자”는 회신이 왔다. 관계자들을 만나 청년의 잠재력을 통해 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고 “모일 수 있는 장과 커뮤니티를 만들어줄 테니, 이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직접 우리나라 사회공헌 문화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보자”는 답변을 들었다.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 진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바로 ‘청년, 나만의 잠재력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이 최고가 된다는 뜻의 ‘청년챔프단’을 만들고 전국에서 단원을 모집했다. 그 결과 2018년 3월 ‘청년챔프단’과 ‘청년챔프단 1기’가 탄생했다. 전국에서 100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지원했고 50명이 서류와 면접을 통과해 함께하게 됐다.

이들과 함께 기획한 첫 캠페인은 ‘손의 꽃 수화 캠페인’이다. 농아인들은 커뮤니티 수단으로 ‘수화’를 활용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화를 아는 일반인들은 매우 적다. 이런 현실 때문에 농아인들은 위급상황이 발생해도 최소한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이 부분에 주목했다. 단원들이 수화를 직접 배워 변화가에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주는 캠페인을 진행했고 시민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었다.

이후 탄력을 받아 청년챔프단 2기 모집과 동시에 또 다른 캠페인들을 실행에 옮겼다. 노인 복지관과 MOU를 맺고 ‘노인 치매 예방 뇌활성화 프로젝트 노크’라는 이름으로 사회공헌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푸드트럭을 섭외해 수익구조를 만들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육원 보수 캠페인, 반려동물 퀴즈쇼, 숨겨진 독립운동가 알리기 등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갈 수 있었다.

청년챔프단 1~3기가 자리를 잡기 위한 과도기였다면, 4기부터는 활동 구체화 및 활동영역 확대에 초점을 맞췄고 이는 결과로 증명됐다. 매 기수를 선발할 때마다 지원하는 청년들이 증가해 최근 청년챔프단 6기 지원자는 2주 만에 350여 명에 이르렀다.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들도 청년챔프단 활동에 동참하는 등 2019년까지 청년챔프단은 순항 중이었다.

그러나 2020년 새해가 밝자마자 변수가 발생했다. 바로 ‘코로나19’였다. 이로 인해 청년챔프단은 모든 오프라인 사회공헌 활동을 온라인으로 변경해야 했다. 수차례 논의를 거쳐 큰 문제없이 온라인 기반 사회공헌 캠페인을 정착시켰다. 다만 보호소, 보육원, 시설, 기관에 대한 접근이 더욱 어려워져 오프라인 활동이 주는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피해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청년챔프단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단기간에 증명했다. 그리고 사회의 선한 영향력과 사회공헌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고 작은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도 청년챔프단은 청년들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 변화를 위해 힘을 기울일 것이다. 청년들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믿고 응원해주기를 바란다. 🍀

시간여행 물리학

SF에서 가장 인기 좋은 소재를 꼽으라고 하면 무엇이 나올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간여행이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시간여행은 일상에 가까운 소재일지도 모른다. ‘짧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혹은 ‘미래에 가서 로또 번호를 보고 올 수 있다면?’ 같은 상상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지 않는가.

그만큼 시간여행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 만화는 수도 없이 많다. 시간여행을 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판타지라면 적당히 지어낼 수 있다. 마법이라든가 포털이라든가...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냥 다른 시대에 떨어져도 상관없다. 그런데 SF라면 좀 이야기가 다르다. 어떻게든 과학적인 설명을 부여해야 한다.

과거로 돌아가 할아버지를 살해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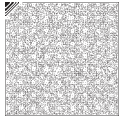
시간여행 이야기를 꺼낸 건 최근 방영 중인 한 드라마 때문이다. 시간여행을 소재로 하고 있는 이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맡은 캐릭터는 시간에 관해 연구하는 물리학 교수다. 그래서 시간여행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나올 줄 알았다.

시간여행이라는 소재의 재미는 시간을 넘나드는 행

위 때문에 생기는 일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혹은 회피하는 방법에 있다. 작가와 독자(또는 시청자) 사이의 두뇌 게임인 셈이다.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자칫 이야기는 꼬이기만 하고 재미는 떨어지게 된다. 미래로 가는 시간여행은 물리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문제는 과거로 돌아갈 때다.

시간여행으로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는 할아버지의 역설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부모가 태어나기도 전인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조부모를 살해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부모가 태어나지 못했으니 당연히 시간여행자 자신도 태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과거로 가서 조부모를 살해할 사람이 없으니 조부모는 생존한다. 그러면 시간여행자가 태어날 수 있고, 과거로 돌아가...

거의 모든 시간여행에서 이 문제가 생긴다.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터미네이터가 존 코너를 살해하는 데 성공한다면, 저항군의 지도자가 없으니 미래의 스카이트는 존 코너를 죽이러 터미네이터를 보낼 이유가 없다. 그러면 존 코너가 생존하고, 이야기는 끝없이 빙빙 돌기만 한다.



역설을 피해가는 방법

작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했다. 그중 하나가 인과관계를 고리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시간여행자가 과거로 가서 일으킨 어떤 사건이 시간여행자가 살던 미래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보자. 시간여행자가 과거에서 사고 현장을 지나가게 된다. 원래는 과거에 간섭하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어린 소녀를 구출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소녀는 자신의 할머니였다. 시간여행자는 그제야 할머니가 어렸을 때 모르는 사람 덕분에 목숨을 건진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었던 게 떠오른다. 자신이 할머니를 구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태어나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방법은 평행우주다. 평행우주는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갈라져 나온 별개의 우주다. 시간여행자가 과거로 돌아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면, 새로운 평행우주가 생긴다. 만약 시간여행자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살해한다면, 그 시점부터 그곳은 평행우주가 된다. 새로 생긴 평행우주는 할아버지가 일찍 죽었고 당연히 자신은 태어나지도 않은 세상이다. 원래 우주는 그대로 있으니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 최근 방영 중인 한 드라마에도 평행우주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평행우주라는 설정을 이용하는 듯하다.

창의적인 시간여행을 보고 싶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과거로 시간여행을 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과학자들이 몇몇 가능성을 논하기는 했지만, 그게 가능할지 검증하는 것조차 지금은 불가능하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자문을 맡기도 했던 물리학자 킵 손 미국 캘리포니아공대 교수는 웜홀을 이용하면 가능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웜홀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공간의 지점을 잇는 지름길을 뜻하는 가상의 개념이다. 한쪽 웜홀 입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여 상대성이론에 따른 시간 지연 효과가 나타날 때 반대쪽 웜홀 입구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과거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손 교수의 이론이다. 물론 그 전에 웜홀의 존재가 사실로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타임머신처럼 사람을 과거로 보낼 수 있는 장치의 이론적 기반은 아직 없다. 그럼에도 주인공이 물리학자라는 설정을 생각하면, 방영 중인 드라마에 나오는 시간여행 이론은 아쉽다. 과거로 돌아가는 이론이야 적당히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해도 그로 인해 생기는 역설에 관해 충분히 고민했다면 어땠을까 싶다. 손쉽게 기존 방법을 쓰는 대신 창의적으로 시간여행의 역설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보고 싶은데, 과연 언제쯤 가능할지 모르겠다. 🍵

글: 고호관(과학칼럼니스트)



우직한 백제의 힘,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 수리 후 복원된 미륵사지 석탑

전북 익산 미륵사 터에 남아 있는 국보 11호 미륵사지 석탑(백제, 7세기 초). 이 탑이 무려 20년 동안 해체 수리를 거쳐 지난해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돌

아왔다.

이 탑은 여러모로 독특하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전통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됐고 가장 큰 탑이며,



백제 무왕 시기 미륵사의 비밀을 간직한 탑이다. 또한 목탑에서 석탑으로 바뀌어가는 한국 석탑의 발전 과정을 잘 보여주는 탑이기도 하다. 탑신을 보면 문과 기둥이 있고 기둥 위를 가로지르는 돌이 놓였다. 1층 네 개 면의 가운데 칸에는 문을 달아 사방으로 통하게 했다. 석탑의 1층 내부로 들어가면 가운데 십(十)자형 공간이 조성되어 네 방향으로 모두 이어진다. 이런 모습이 목조 건축물을 연상시킨다. 돌을 이용해 나무 집을 짓듯 탑을 만든 백제 석공들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목조 건물처럼 탑을 세우면 오래 지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기둥도 여럿 세우고 그 사이에 돌문까지 설치하고 계다가 대들보 같은 돌도 올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흔히 보아온 석탑보다 훨씬 많은 부재가 들어간다. 탑을 구성하는 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탑은 위험하다. 자칫 돌 하나만 뒤틀리더라도 연쇄 반응으로 탑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거대한 사찰 미륵사에는 원래 가운데에 목탑 하나가 있고 그 좌우의 동서쪽에 석탑 두 개가 있었다. 목탑은 조선시대 이전에 무너졌거나 불에 타 없어졌다. 동탑도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붕괴되어 사라졌다. 하나 남은 서탑도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일부가 무너졌다. 원래 9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탑의 꼭대기 세 개 층이 완전히

무너져 6층까지만 남은 것이다. 그것도 6층까지의 네 개 면 가운데 세 개 면의 상당 부분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미륵사지 석탑 해체 보수, 해체만도 10년 걸려

1915년 일제는 탑이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무너진 경사면에 콘크리트를 발라 응급조치를 취했다. 위태롭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콘크리트까지 덕지덕지 발라져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체 수리 후 복원된 미륵사지 석탑의 뒷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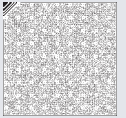


해체 이전의 미륵사지 석탑

오랫동안 보아온 국보 11호 미륵사지 석탑이었다. 6층까지의 높이는 14.2m. 상태는 매우 위태로웠다. 1990년대 들어 탑을 해체해 보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렇지만 선뜻 해체를 결정하지 못했다. 위험한 상태에서 해체에 들어갈 경우 자칫 더 큰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석재를 훼손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제거한다는 것 또한 보통 일이 아니었다. 조심스러웠지만,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수년 동안 논의와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했고 결국 1998년 해체 보수로 결론을 냈다.

2001년 10월 말 해체를 시작했다. 그런데 애초의 예상대로 해체작업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해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덕지덕지 달라 붙어있는 콘크리트를 떼내는 일. 자칫 탑의 부재를 훼손할 수 있기에 노련한 석공과 기술자들의 수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의 두께와 양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당초 30~40cm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최대 4m에 달했으며 그 양도 185톤이었다. 부재 또한 예상을 뛰어넘어 3천여 개가 나왔다. 그러다보니 석탑을 해체하는 데만 10년이 걸렸다.

해체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굴되기도 했다. 석탑 내부 심주석 중앙에서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 일체가 발굴된 것이다. 금제 사리호(舍利壺), 금제 사리봉안기(舍利奉安記), 은제 사리기(舍利器), 사리와 각종 장식물 등. 화려하고 정교한 사리호도 대단했지만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단연 사리봉안기였다. 금판으로 된 사리봉안기에는 미륵사지 석탑을 세우게 된 내력을 새겨놓았다. ‘백제 왕후인 사택적덕의 딸이 사찰을 세우고 639년에 사리를 봉안했다’는 내용이었다. 선화공주와 남편인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사택적덕의 딸이 왕후였고 또 미륵사탑을 세웠다니...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 사리봉안기는 미륵사의 창건 주체는 물론이고 선화공주와 무왕의



관계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참으로 흥미로운 발굴 성과가 아닐 수 없었다.

해체도 어려웠지만 해체 이후의 조립과 복원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문화재연구소는 해체가 진행 중이던 2005년부터 복원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석재의 강도를 확인해 해체한 부재를 어느 정도까지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했다. 또 9층까지 복원할 것인지, 아니면 해체 직전의 모습대로 6층까지 복원할 것인지도 논의 대상이었다. 문화재연구소와 전문가들은 ①9층 복원 ②6층 부분 복원 ③6층 전체 복원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6층 부분 복원으로



미륵사지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

결정됐다. 해체 직전의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되살리는 방안이었다. 이에 따르면 2층까지는 사방을 모두 복원한다. 1, 2층의 경우는 탑의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복원해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한다. 3~6층은 해체 전의 모습으로 복원하되 탑의 안전을 위해 일부를 보완 복원한다. 문화재 보수복원은 원형보존(해체 직전의 상태)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6층 복원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받은 것이다. 이어 2013년부터는 조립과 복원 작업에 착수했고 그 모든 과정이 2019년 4월 마무리됐다.

드넓은 미륵사 터. 거기 우뚝 서 있는 미륵사지 석탑은 보는 이를 압도한다. 비록 일부가 심하게 훼손됐지만, 우리 전통 석탑 가운데 이렇게 우직하고 장쾌한 탑이 또 어디 있을까. 해체 복원한 모습을 보면 옛 돌과 새로운 돌이 섞여 있다. 그래서 거무스레하거나 누런 돌도 있고 뽀얀 돌도 있다. 옛 부재 상당수가 강도가 약해져 다시 사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화강암을 새로 가공해 사용했기 때문이다. 백제 흔적의 돌과 21세기 대한민국의 돌은 저렇게 공존한다. 힘겨웠지만 그래도 우직하게 1천300여 년을 지켜온 미륵사지 석탑. 20년의 지난한 해체 수리 과정을 거쳐 지금 우리 앞에 다시 서 있다. 참으로 든든하다. 🍷

글·사진. 이광표(서원대 문화유산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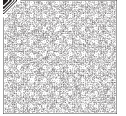


월영공원 단풍과 낙동강 건너편 물가의 단풍이 볼만하다. 사진 오른쪽에 월영교가 보인다.

단풍 속에 숨어 있는 보물들을 찾아 길을 걷다

경북 안동시 월영교, 안동댐, 임청각 등을 둘러보는 길

월영교에서 시작해서 다시 월영교로 회귀하는 약 10km 길을 걸었다. 단풍이 짙어지는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낙동강과 숲, 뒷골목에 숨어 있는 보물들을 찾았다. 그 길에서 만난 문화재들, 조선시대를 살았던 부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보물이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롯하게 걸으며 가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보물이 아닐까 생각했다.



월영교를 건너다

달굴, 엄달굴에 단풍이 들었다. 은행나무 노란 잎이 울긋불긋 물든 활엽수 잎사귀와 어울렸다. 늘 푸른 나무의 초록도 도드라진다.

안동댐 아래 마을 옛 이름이 달굴, 엄달굴이다. 달빛 아래 선비들이 모여 시를 읊었다는 월영대도 있다. 월영대가 있던 동네 이름이 달빛 비치는 계곡, 월곡이었다. 옛사람들이 정자를 세우고 ‘월영대’라는 글자를 새겨 달빛을 맞이할만한 곳 아니었겠는가? 교묘한 달빛 낭랑한 소리가 엄달굴에 울려퍼졌다.

안동댐 아래로 흐르는 낙동강에 놓은 다리가 달빛 비치는 다리, 월영교다. 이름은 시민들이 지었다. 공모전을 연 것이다. 322개의 이름이 출품됐고, 그중 월영교가 채택됐다. 달굴, 엄달굴, 월영대, 월영교... 옛 이름들과 어울린 월영교, 세월이 한참 흐른 뒤 사람들은 그 이름도 전설처럼 이야기할 것 같았다.

‘나라 없는 몸 무덤은 있어 무엇하느냐 내 죽거든 시신을 불살라 강물에 띄워라 혼이라도 바다를 떠돌면서 왜적이 망하고 조국이 광복되는 날을 지켜보리라’

월영공원 ‘화르락’ 불타는 단풍 속에 우뚝 선 비석 하나, 거기 새겨진 글귀다. 일제강점기에 여러 동지들과 함께 만주에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의 터전을 열고, 신흥무관학교, 백서농장, 서로군정서, 대한통의부를 통해 무장 항쟁을 이끌었던 일송 김동삼 선생이 일제에 잡혀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기 전에 남긴 말이다. 월영교를 건너다. 낙동강과 어울린 월영공원 단풍과 앞으로 가야 할 안동댐이 왼쪽에 보인다. 강기슭 숲에 놓인 데크 길과 보조댐이 다리 오른쪽 풍경이다. 강물이 유장하다. 이 길을 다 걷고 맞이하는 월영교의 밤, 강물에 비치는 달빛 풍경을 기대했다.

수백 년 전 사랑의 편지를 읽다

강 건너편에서 보았던 산 중턱 기와지붕이 궁금했다. 월영교를 건너 우회전해서 조금 가다보면 길 왼쪽에 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인다. 그 길에서 보물 제305호로 지정된 석빙고가 먼저 여행자를 반긴다. 원래 도산면 동부리 산기슭에 있



월영교 표석



월영교 선성현 객사 임청각 안동댐

던 것인데 안동댐을 만들면서 지금의 자리에 옮겨지었다. 예안현 읍지인 ‘선성지’에 현감 이매신이 조선 영조 13년(1737년)에 사재를 털어 석빙고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낙동강에서 잡히는 은어를 신선하게 보관했다가 왕에게 진상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석빙고를 지나면 ‘월영대’라는 글자가 새겨진 바위가 있다. 자연 암벽을 다듬고 글자를 새겼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2호다. 월영대는 현재 안동호의 남부 동쪽에 있었다. 안동댐을 만들면서 이곳에 옮겨 세웠다. 월영대를 지나면 바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9호인 선성현 객사다. 객사 가운데 건물에서 초하루와 보름에 궁궐을 향해 절을 했다고 한다. 양쪽 옆 건물은 현을 찾은 손님이나 사신 등의 숙소였다. 서부리에 있었는데 안동댐을 건설하면서 이곳으로 옮겼다.

숲속의 보물을 돌아보고 내려와 다시 길로 접어들었다. 물가에 놓인 테크길을 따라 걷는다. ‘원이 엄마 테마

길’이라는 안내판이 보인다. 고성 이씨 문중의 며느리였던 원이 엄마와 남편 이응태의 사랑 이야기가 그 길에 남아 있었다.

원이 엄마는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편지를 쓴다. 안내판에 적힌 긴 편지글 중 몇 문장을 추려 적어보았다.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 없어요 / 나를 데려가 주세요 /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 없고, / 이별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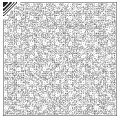
그 사랑 참 애틋하다.

다시 월영교, 강물에 비친 달을 보다

조선시대를 살았던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수백 년 뒤 이 길을 걷는 사람의 마음에 따뜻한 모닥불을 지핀다. 살가운 마음으로 걷는 길, 곳곳에 있는 전망대마다 잠깐씩 머무르며 꿈꾸는 아이들 마음처럼 부풀어 오르는 가을 강을 바라보았다.



선성현 객사 건물



임청각



법흥교를 건너 도착한 곳은 임청각이었다. 보물 제182호 임청각은 조선 중종 10년(1515년)에 형조 좌랑을 지낸 고성 이씨 이명이 지은 집이다. 원래는 99칸 집이었는데 중앙선 철도공사로 인해 행랑채와 부속채가 철거되어 현재의 규모가 됐다. 군자정은 임청각의 별당이다. 건물 둘레에 뒷마루를 돌려서 난간을 세웠으며, 돌층계를 밟고 오르내리며 드나들게 했다.

임청각은 독립운동가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이회영, 이시영 선생 등 동지들과 간도 일대에 자치단체를 만들고 훗날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신흥강습소를 만들어 독립군 양성에 앞장선다. 그의 염원이었던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32년 이국에서 숨을 거뒀다. 그의 아들과 손자 등 삼대가 독립유공자다.

국가민속문화재 제185호 안동 고성 이씨 탐동파 종택도 그 부근에 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한

옥 건물 앞에 코스모스가 피었다. 집 앞 골목에 국보 제16호 안동 법흥사지칠층전탑이 있다. 전탑이란 흙으로 만든 벽돌로 쌓은 탑이다. 8세기에 법흥사를 건립하면서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법흥사의 다른 건물은 다 없어지고 이 탑만 남았다.

큰길로 나와 월영교 방향으로 걷는다. 다시 월영교를 건너 좌회전, 개목나루를 지나며 옛 나루터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영락교를 건너서 안동댐 방향으로 걷는다. 메타세쿼이아와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 있다. 공원을 알리는 안내판 부근 메타세쿼이아 숲길로 들어가 숲의 요정이 살 것 같은 숲속 작은 연못을 지난다. 안동댐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로 접어든다. 안동댐 정상에 난 길로 걷는다. 그 길에서 지나는 풍경을 한눈에 넣는다. 영락교, 월영교, 보조댐, 법흥교 그리고 먼 풍경까지 보인다.

월영교로 돌아오는 동안 해가 저문다. 밤하늘에 달이 뜨고 월영교 아래 낙동강 강물에 달이 비친다. 🌕

글·사진. 장태동(여행작가)

준말의 표기 요령



한글 맞춤법 제4장 제40항에서는 접사 ‘-하다’가 붙는 말을 준말로 적을 때,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는지 거센소리로 적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넉넉하지’를 준말로 적을 때 ‘넉넉지’로 적어야 할까, ‘넉넉치’로 적어야 할까? 접사 ‘-하다’가 붙는 말의 어간 끝음절 ‘하’는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고, ‘하’ 전체가 줄어 예사소리가 날 적에는 예사소리로 적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접사 ‘-하다’가 붙는 말 바로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면 ‘ㅎ’은 남고 ‘ㅏ’만 줄어 거센소리로 적어야 하지만, 접사 ‘-하다’가 붙는 말 바로 앞말의 끝소리가 안울림소리이면 ‘하’ 전체가 줄어 예사소리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넉넉하지’를 준말로 적을 때는 접사 ‘-하다’가 붙는 말 바로 앞말의 끝소리가 ‘ㄱ’으로 안울림소리이므로 ‘넉넉지’로 적지만, ‘상관하지’를 준말로 적을 때는 접사 ‘-하다’가 붙는 말 바로 앞말의 끝소리가 ‘ㄴ’으로 울림소리이므로 ‘상관치’로 적는다.

참고로 접사 ‘-하다’가 붙지 않는 말은 줄 ‘ㅏ’도 없고 남을 ‘ㅎ’도 없으므로 비록 거센소리가 나더라도

거센소리로 적을 근거가 없으므로 예사소리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슴지’는 ‘서슴다’가 기본형이므로 접사 ‘-하다’가 붙을 수 없는 말이므로 ‘서슴치’로 적을 수 없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건	결과	예시
‘-하다’가 붙는 말 바로 앞말의 끝소리가 안울림소리면,	‘지’로 적는다.	깨끗지, 넉넉지, 생각지, 섭섭지
	‘건대’로 적는다.	부탁건대, 생각건대, 요약건대
‘-하다’가 붙는 말 바로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면,	‘치’로 적는다.	상관치, 활발치, 무심치
	‘컨대’로 적는다.	요청컨대, 회상컨대
‘-하다’가 붙지 않으면,	‘지’로 적는다.	서슴지

그런가 하면 한글 맞춤법 제4장 제35항은 어미 ‘-어/-었’을 준말로 적는 규정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제35항의 [붙임 2]에서는 어간 ‘ㄴ’ 뒤에 어미 ‘-어/-었’이 어울려 ‘-내/-겠’이 될 적에 준 대로 적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얼마 되지 않아요”와 “얼마 안 돼요”의 표기가 다르고, “국회가 안정이 돼서 좋다”와 “국회가 안정이 되니까 좋다”의 표기가 다르다.

이 외에도 ‘예요’와 ‘예요’를 바르게 구분해서 쓰기 위해서는 ‘예요’가 ‘이에요’의 준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곳은 국회이에요요”라고 하든지 “이곳은 국회예요”라고 해야 한다. “조금 있으면 설날이에요요”나 “아직이에요요”와 같이 쓰면 안 된다. “조금 있으면 설날이에요요”나 “아직이에요요”와 같이 써야 한다. 🏠

글: 김형주(상명대 국어문화원 특임교수)



21대 첫 정기국회 개회, 제4회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 9. 1. ~ 9. 30.

- 1 • 제21대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 열려
- 2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당대표 출마 선언
• 미래통합당, 새 당명 '국민의힘'으로 최종 확정
- 4 • 국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 보건복지부·의협, 집단행동 중단·진료현장 복귀 합의
- 7 • 국회, 가족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까지 연장하
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안' 의결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추석연휴
고향 방문 자제해야"
• 법원,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보석취소 결정
- 9 •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에 강은미 의원 선출, 원내수석에
장혜영 의원
- 11 • 문재인 대통령,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초대 질병관
리청장에 임명
- 12 • 질병관리본부, 출범 16년 만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 13 • 검찰, '군 휴가 특혜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소환
조사
- 14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
- 16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 취임
- 18 •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46억 원 손배 청구
• 더불어민주당,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제기된 김홍걸 의원
제명
- 22 • 독감예방 무료접종 하루 전 긴급 중단, 백신 유통과정
에서 품질 문제 발견
- 23 • 강릉 등 5개 시군, 19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피감기관 공사 수주 특혜 의혹으
로 자진 탈당
• 제4회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7조 8천억 원 규모
• 남영신 신임 육군참모총장 취임...사상 첫 학군 출신 육
군 수장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봉준호 영화감독, 미국 '타임'이
선정한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 24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문제 의원 윤리위 징계 시 국회
출석 금지해야"
• '이스타항공 사태 책임론'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자
진 탈당
• 국회, 본회의 열고 민생법안 등 법률안 7건 처리
• 보건복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선출
- 25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
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문재
인 대통령·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혀
- 26 • 박병석 국회의장, 스페인·독일 공식방문 위해 출국
- 27 • 청와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남북 공동조사 공식 요청
• 정세균 총리,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계획에 "즉시
현장에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고 밝혀

정리. 윤성혜

절합

節畧 分절을 극복하고, 결합하다

국회 ART GALLERY 10월 작품전

2020. 10. 5. - 10. 29.

-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 전시품 〈마음〉 등 회화 및 조각 15점
- 작가 차홍규
- 추천 권철승 의원실
- 문의 국회사무처 문화소통담당관실 02-6788-2296



한 해의 수고를 갈무리하는 10월. 정기국회가 한창인 국회도 넉넉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토론하며 일구어낸 성과들을 알차게 잘 담아냈는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 김현아

‘한국수화언어법’ 취재를 위해 농인협회에 다녀왔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어 가장 조용한 시위를 해왔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수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수어교육 의무화라는 농인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 고영선

국회보 열두 권을 만들면 1년이 끝나는데, 이제 열 번째 책이 나옵니다. 모든 잎이 꽃처럼 피어난다고 해서 ‘두 번째 봄’이라 불리는 가을이 깊어갑니다. 국정감사가 한창일 10월, 벌써부터 11월호 생각에 마음만 분주해집니다.

● 박민선

마스크 생활이 익숙해진 탓에 언제부터가 사람들의 표정과 웃음을 못 본 채 지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국회보 10월호를 통해 많은 분들이 마스크 속에서도 미소 짓는 10월이 되길 바랍니다.

● 윤성혜

불어오는 바람 속에 가을 내음이 가득한 계절, ‘길에서 길을 찾다’ 촬영을 위해 서울 관악구로 향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이 잘 진행되어 코로나19의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 김지범



대한민국 의정 종합채널
NATV가 만듭니다

국회도 훈추기 하는
칭찬의 힘!

인터뷰릴레이 칭찬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의의 경쟁과 칭찬으로
품격과 신뢰의 정치,
상생의 국회상을 보여드립니다



월~금요일 낮 12시 50분 방송

진행 박새암

국회방송  NATV
www.natv.go.kr

